朝鮮日報
夕刊
十日(土)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伊太利東阿遠征軍 十五萬國境에配置

主力에土民軍을加하야戰鬪力低下防止

虎視眈眈待機繼續中

【電通아디스아베바九日發】에디오피아 軍總司令部情報에 依하면 伊太利의 東阿遠征軍의 集結은 드듸어 整備되어 에리트리아의 對 에디오피아國境線에는 十萬, 伊領소말린드의 對에디오피아 國境線에는 五萬의 伊太利軍이 布陣되어 後方部隊와 無線電話, 飛行機, 駱駝隊等으로써 連絡을 取하면서 에디오피아를 南北으로 挾하고 虎視眈眈待機를 繼續하고잇는데 그主力에는 慓悍한土民軍을 多數交하야 氣候風土의 變化에 依한 戰鬪力의 低下를 防止할 組織이라고한다 이에對하야 에디오피아側은 對抗工作의 詳細를 秘密에 附하고잇스나 根本方針으로國境線에서 百哩以內의 要地四個所에 에디오피아軍의 基本部隊를 集結시키는데 끈치고 新國境紛爭事件의 發生을 防止하기爲하야 國境線에는 可及的 가까히가지안코 專혀 伊太利軍이 에디오피아領을 侵犯할 境遇에 이것을 排擊한다는 作戰으로 進出하기로 되어다 그리고 上記四個所의 集結도 基幹部隊만이오 아직 本格的動員에 依한 戰時編成은 하지아니하엿다고한다

英佛伊三國會議 十六日에開催豫定한다

【電通巴里九日發】佛國政府는 八月三日의 佛伊주네브宣言에 따라 에디오피아 問題에 關하야 一九〇六年三國條約을 基礎로하는 英佛伊三國會議를 來八月十六日부터 巴里에서 開會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伊太利로부터는 代表알로이지 無所任大使以下를 英國으로부터는 이든無所任相以下를 特派할 通告를受하엿다는旨를 九日 發表하엿다 會議場所는 케·돌세이의佛國外務省으로 內定하엿다

伊國도三國會商參加

【羅馬九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九日 巴里會商에 關한 招請을 接受하는 同時에 알로이지男을 主席代表로 會商에 參加시키기로 決定하고 九日午後 如左히 發表하엿다

英、佛、伊三國會商은 八月十六日부터 巴里에서 開會하고 一九〇六年 十二月의 條約에 基하야 伊에兩國間의 情勢를 檢討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伊太利政府는 알로이지男을 主席代表로 會商에 參加시키기로 되엇다

米「시아틀」에 不敬事件又勃發

【시아틀九日發聯合】배니티페어 不敬事件이 一段落이된 時節도 時節인 이때에 又復 不敬事件이 起하야 시아틀駐在 日本總領事 內山淸氏는 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卽時 嚴重抗議를 發하는 同時에 對策을 考究中이다 事件은 시아틀市『캐피롤·힐』의 코·요레狩獵(北米山犬狩獵)에 端을 發하야 日本皇室의 尊嚴을 冒瀆한 如한 行爲를 하게된것이다 코·요레狩獵의 主催者『캐피롤·힐』의 임부루브민느크럽의 로버트氏는 特別히 不敬을敢行할 意志는 업다고하고잇스나 內山總領事가 關係者에게 警告를 發한데도 不拘하고 이것이 無視된것에 對하야서는 不少하게 憤慨하고잇다

當事國主張無視의 多數主義는反對

聯盟日程에서全的撤回를要求

伊太利政府의方針

【羅馬九日發聯合】會商에 臨할 伊太利政府의 方針은 如左하다

一、和協委員會의 權限은 單히 紛爭事件의 客觀的事實과 責任의 所在를 糾明함에잇고 紛爭을 根本的으로 解決할 權限은 업스나 來三國會談에서 紛爭을 根本的으로 處理할수가 잇슬것이다 但 英國政府는 끗까지 에디오피아國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政治的進出을 拒否하고 單히 經濟的特殊利益을 認定함에 不過하다고하면 會談은 到底히 成功을 바랄수업다 伊太利政府로서는 끗까지 國策遂行을 期하고 英國政府의 態度如何로는 某程度의 讓步는 不辭한다

一、如何튼 巴里會商은 一九〇六年의 條約에서 規定된 에디오피아領土保全이란것이 果然 可能할지 또 可望할지 그與否를 決定하지안흐면 안될다 卽 英伊兩國政府는 一八九一年 二通의 議定書를 締結하야 에디오피아國의 分割에 同意하엿고 一九〇六年의 條約에서는 에디오피아國의 領土保全은 全혀 暫定的인 協定이란 事實에서 英佛伊三國은 同條約에 依하야 各其自國의 勢力範圍를 決定하엿고 그뒤 英國政府는 一九二五年의 條約에서 伊太利政府에 對한 公約을 反覆하고잇다 萬若 英國政府가 依然 에디오피아國의 領土保全을 固執하면 伊太利政府當局은 從來의 關係를 天下에 公表하지안흘수업다 그結果 英國政府는 非常한苦境에 陷하게될것이다

一、또 巴里會商은 에디오피아問題를 國際聯盟에 提出하는것이 得策인지 그與否를 最終的으로 決定하지안흐면 안되다 伊太利政府는 聯盟을支持하나 에디오피아問題判定의 權能을 附與하는것은 正面으로 反對한다 特히 多數의 意見으로서 一方 當事國의 主張을 埋葬함과 가튼 多數主義에는 斷然 反對하지안흘수 업다 따라서 英佛兩國이 에디오피아問題를 聯盟의 議事日程으로부터 全的으로 撤回할것을 承諾하지안는 限會商은成功을 바랄수업다

話題解說 新疆省

外電에 依하면 新疆省에 잇서서의 蘇聯의 策動은 積極化하야 新疆省獨立도 單只時期問題가 되엇다고 傳하거니와 이新疆地方은 中國의 邊境地方의 하나로 世上에 잘 알리지 아니한곳이다. 新疆은 어떤곳인가 簡單히 紹介하려고한다

◇新疆은 南은 西藏及 印度에 連하고 西는 中央亞細亞에 接하고 北東은 蒙古와 境하는 面積 百四十萬方粁、人口約二百萬을 算하는 地方이다 古代에는 所謂 西域의 地로 古代中國과 中央亞細亞及 印度等의 交通上 要衝에 當하야 中國古代文化의 門戶이엇는데 當時에는 氣候도 良好하엿던모양으로 文化가 發達하야 數多한 興亡이 잇섯다 그러나 지금에는 氣候惡化로 半砂漠地로 變하고 古代의遺物만이 때로 發掘될뿐이다、淸朝初에 準噶爾酋長 噶爾丹이 新疆을 中心으로 蒙古、靑海等의 大領域을 占有햇스나 淸의 高宗에게 平定되엇고 一八七〇年頃에 回教徒亂으로 露國이 伊犁地方을 占領한일이 잇섯스나 償金으로 回復하야 新疆省으로 하야 이것을 直轄하고 中國本土와 同樣의 統治를 하여와다

◇新疆省은 天山南路와 天山北路로 區分한다 天山北路는 天山山脈과 亞爾泰山脈間에 橫在한 盆地로 中國과 中央亞細亞間의 交通上要地에 當하야 一名 準噶爾 又는 伊犁라고 稱하는데 그一部에는 農産이 豊富하고 牧畜도 行한다 住民은 蒙古族으로 回回敎徒이다 天山南路는 一名 支那土耳其斯坦 或은 回疆이라고 稱하는 南에 잇는 崑崙山系및 카라코룸山系와 北에 잇는 天山山系間에 介在한大盆地로 塔里木盆地가 主로서 타클라마칸沙漠이 橫在한다 塔里木河上流地方에만 겨우農耕에 適할뿐이오 全土가 거의 沙漠이다 住民은 土耳其族이主로 그大部分은 山麓地方에 分布하야 農耕牧畜에從事한다 崑崙山脈方面에서 玉金、銀等을 産出하고 沙漠地方의 羅布泊及 그附近에서食鹽소다、硼石等을産出한다。

伊主張如何不拘 日本品進出企圖

外務省對에貿易方針

【電通東京電話】伊太利政府는最近 에디오피아에 對한 日本品의 輸出이 자못 旺盛하게되고 잇는 情勢에 鑑하야 盛히 防遏策을 取하고 日本品의 에디오피아進出은 伊에修交條約에違反되는것이라고 宣傳하고 잇스므로 外務省은 愼重히 調査한 結果 何等 條約에 違反되지안는것이 判明되엇다 卽 伊太利側의 指摘한 條約은 一九二八年八月二日 伊에間에 締結된修交條約의 第三條를 指摘 하는것인데 同條約은 何等 伊太利에 對하야 特惠的 待遇를 約束한것이 아니다 그리고 日本은 日에通商條約(一九三二年八月二十六日 批准交換)第二條에依하야 居住, 通商及 關稅에 關하야 最惠國待遇를 享有하고잇스므로 當然 右와 如한 伊에修交條約第三條에 依한 伊太利의 特權에도 均霑되잇는터로 伊太利의 主張은 何等 根據가 업는것이 明白하게 되엇다 따라서 日本政府는 伊太利側의 思惑如何에 不拘하고

一、日本品의 進出은 廉價良品임으로서 自由競爭에 依하야 優位를 하게되는것이다

一、廉價한 日本品은 에디오피아土人의 福祉를 增進하는것이다

라는 見地에서 日本品의 對에디오피아進出을 積極的으로 援助할 方針을 決定하엿다

에國特派使節로 데바필氏渡日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아디스아베바陸軍士官學校主事데바필氏는 特派使節로 日本에 赴하기로되어 九日 國都를 出發하야 지프치를 經하야 海路 日本에 向하엿다、日本에 到着한 後에는 鐵路器械、其他軍需品購入의 交涉을 行할것으로 보이는데 에디오피아 政府當局은九日 同氏의 使命에 對하야 特히 如左히 言明하엿다

데바필氏는 初代東京駐在領事로 日本에 赴任한다 同氏는 日、에兩國間의 一般的外交關係促進의 使命을 帶하엿스나 特殊한 軍事的使務는 帶하지아니하엿다

레英經濟使節 日本政府와會談

【電通倫敦九日發】英政府의特使 레이스로스氏는 渡中의 途中日本에 들려서 日本政府當局과도 會談을 行하기로되어 日本側이英國植民地의 日本品에 對한 輸入配定問題를 上程하고 이緩和或은撤廢에 對하야 協議를 希望할 境遇에는 欣然 右協議에 應할 意向을 가지고잇다

總督謹話

七月下旬朝鮮中部及 西朝鮮地方에 豪雨가잇서서 河川이 氾濫되야 京畿道、江原道、黃海道及平安北道의 四道에亘하야死傷及行衛不明者 一三四名 家屋의流失、全潰及半潰六五四七戶、船舶의 流失、沈沒、全潰及半潰五六隻에 達하는被害가잇섯읍니다

此慘狀이 天聽에 達하자 惶悚하옵게도 天皇 皇后兩陛下께압서는 깁히 此等蒼生의 窮狀을 御軫念하시와 御救恤의 思召하압신 處分으로써 今次多額의 御內帑金下賜의 御沙汰를 拜하엿읍니다 天恩의 鴻大함은 洵히 恐懼感激에 不堪하는바 입니다

總督府로서는 一日이라도 速히 此恩命을 罹災民에게 傳하고 官民協力하야서 災害의 復舊에 努力하야 聖旨에 奉答하기를 期하는터입니다

汪氏辭任受理如何로 國府對日感情測定

辭表提出은歐米派의壓迫中傷結果

外務陸軍兩當局觀測

【東京電話聯合】靑島에서病療養中인 行政院長兼 外交部長汪精衛氏의 辭職說에 關하야 外務陸軍兩當局에는 아직 何等 情報도 업스나 兩當局에서는 如左히 觀測하고잇다

卽 汪精衛氏의辭職에 關해서는 最近 歐米派의 中傷壓迫을 受하야 傷心하고잇스므로 辭表를 提出하게되엇는지도모르나 蔣介石氏로서는 持任에 適當한 人物發見이 困難한事情에잇서서 今日 汪精衛氏를 慰留하고 留任을 求할수바게 업슬것이다 行政院長의 椅子를 바라보고잇는이는 孫科氏等이잇는모양인데 如斯한 人物이 行政院長 或은 外交部長이 되더라도 國民政府의 對日關係는 日中兩國의 歷史的 地理的 關係로 보아 急激한 變化는 絶對로 잇슬 理由가 업는것은 日本側의 旣定方針이다 日本側은 汪精衛氏의 辭表受理와 新行政院長의 就任에 關해서도 이것으로써 中國의 日本에對한 誠意의 바로미터라고 嚴肅히 이것을 觀測할 態度를 堅持하고잇다

汪氏의辭任으로 外交部는大混亂

各般의事務全然停頓

【南京十日發聯合】汪精衛行政院長 突然한 掛冠에 國民政府는 上下를擧하야 大混亂을 呈하고 잇는데 特히 外交部에서는 各般의事務가 全혀停頓되어 滿州事件에 關한 善後處置와 가든것도 全혀말아니된形便이다

日中兩國政府間의 親善工作도 汪精衛氏의 辭任으로 얼마동안 停頓되는바게 업다고보힌다

汪氏의後任은?

【南京九日發聯合】汪精衛氏의 後任에는 孔祥熙氏의 代理兼任又는 王正廷氏의 兼任、外交部長은 黃郛、張群、徐謨氏說이 有力하다

汪氏慰留成功엔 蔣氏支持가必要

【電通南京十日發】南京에서 汪精衛氏의 歸京을 기다리고 잇던 蔣作賓氏는 突然 汪精衛氏의辭任에 遭遇하야 九日 何應欽、唐有壬氏等과 重要協議를 行하엿는데 汪精衛氏의 辭表提出은 汪氏의 對日方針에 關한 反對派의 策動이 六中全會議를 압두고 자못 激烈해진것이 主要原因의 하나로 보이므로 汪氏의 慰留에 成功하야 그 對日積極策을 遂行함에는 다시 對日方針에 關한 蔣介石氏의 確乎한 汪氏支持의 言明을 得함이 必要하다는데 意見이 一致되어 그旨를 蔣介石氏에 打電하엿다 이때문에 二十日頃 歸任할 豫定이던 蔣作賓氏는 蔣介石氏의 返電으로 今後의 豫測이 서기까지 歸任을延期하기로 되엇다

蔣大使歸任도未定

【南京十日發聯合】東京駐箚大使 蔣作賓氏는 二十日前後 歸任할 豫定으로 諸般準備를 進行하얏스나 外交部長 汪精衛氏가 突然 辭表를 提出하얏스므로 豫定을 變更하야 大使의 歸任도 全然未定케되엇다

汪氏留任안흐면 部長級大更迭

【南京十日發聯合】汪精衛氏今回의 辭意는 相當히 硬固하야 容易히 慰留에 應하지아니할것이 아닌가고 念慮되는바 從來의 慣行에 徵하면 行政院長이 更迭되면 院內要人은 連袂辭職하는 例이므로 汪精衛氏의 辭職이 確定되면 行政院內各部長級 其他廣範圍의 異動은 避키 難하다고 보인다 各部의 部員도 九日夜來 一身의 進退念慮로 事務도 손에잡히지안는 形便이다

須磨總領事에게 汪氏辭任言明

唐外交次長으로부터

【南京九日發聯合】須磨總領事는 九日外交部에 次長唐有壬氏를訪問하엿는데 그때에 同氏는 汪精衛氏의 行政院長과 外交部長辭任의 件을 正式으로言明하엿다

立法院一部에는 聯俄容共策復活唱導

汪氏의辭任은確定的

【上海九日發聯合】汪精衛氏의辭表提出은 中國全土에 一大센세슈-숀을 捲起하야 벌서부터 여러가지風說이 돌고잇는데 中國民衆의 意向을 綜合하건데 結局汪氏의辭職은

一、猛烈한 反汪派의 策動에基한것으로 이미 立法院의 一部에서는 聯俄容共策의 復活까지 唱道되고잇는 形便인데 滿州事件의 勃發은 全혀 汪氏로하여곰 苦境에 陷케한것

一、汪精衛、蔣介石 兩巨頭關係에 틈이생긴것

一、汪氏는 日本勢力을 빌려서 蔣介石氏의 勢力을 抑壓하려는 意向을 품엇다

라는 流說까지잇서서 兩巨頭間의 感情이 滋味업서서 蔣氏로하여곰 此際에 國民政府의 陣容을 一新하야 對日外交의 再建을 企圖케한것으로 汪氏의 辭任은確定的이라고 보인다

梅津中將北平到着

【北平九日發聯合】第二師團長으로 榮轉한 中國駐屯軍司令官梅津中將은 九日午前十一時五十分 着列車로 官民多數出迎裡에 來平에 到着하야 卽時 宿舍扶桑館에 들어갓다

朝鮮鐵道의滿鐵委管과讓渡 總督府는全然反對

兩鐵道連絡上少許도不便한點업고

財政上으로一元化不可

東亞大陸의 鐵道一元化計畫에 作한 朝鮮鐵道의 滿鐵移管又는讓渡問題에 對하야는 松岡洋右氏의 滿鐵總裁 就任과同時에다시 各方面에 鐵道一元論이 擡頭하고잇다 그러나 總督府側의 意嚮은 朝鮮鐵道의 滿鐵移管에는 全然反對로 現在兩鐵道는 運輸의 連絡上少許도 不便不利한點이 無할뿐아니라 朝鮮鐵道는朝鮮獨特의産業開發上의 重大要件이 되어잇는이만치 此를單純한 統制主義에 依하야 他에讓渡할 必要를 認定치안는다하며 又朝鮮鐵道의 收益은 總督府의重要한 財源이니만치 財政上으로보아서라도 現在運輸連絡上何等缺陷이업는 兩鐵道를 一元化식힐 必要가업다하야 設或 滿鐵이나 駐滿大使로부터의 提議가잇다하더라도 斷乎反對할 意向으로 朝鮮總督府首腦部의 一致를 보는 模樣이다

有力指導者潛入 北中共産黨再建

復雜한問題를惹起?

【北平九日發聯合】北中에잇서서의 共産黨의 活動은 一時閉鎖한것가티 보이더니 共産黨取締에 特殊技能을 發揮한 憲兵第三團의 撤退後 有力한 指導者가 潛入하야 再建工作이 成案된 모양으로 財政部直營의 印刷局閉鎖에 伴하는 失業職工 千七百名에의 策動은 第一着手로 보이어 赤化途上의 北中에 復雜多岐한 問題를 惹起하고잇다

滿中通郵細目 國府回訓에期待

【新京九日發聯合】滿中通郵問題의 細目的交涉은 今月初 天津에서 開催되엇던바 協議를 終了하고 日本側委員 儀我大佐는 去七日 飛行機로 新京에 歸還하엿다 右交涉의結果 郵便物遞送料의 低減에 對해서는 中國側의 要求를 容認하야

一、滿中電話連絡에잇서서 通話區域을 新京、哈爾賓까지 擴大할것

一、附屬地로부터 中國行의 郵便物에 對한 不足稅徵取의 徹廢等의 問題에 對해서는 日本側으로부터 이것을 勸告하야 中國側委員도 이것을 硏究하기로 되어 目下 南京政府의 回訓을 要求하고잇는데 近近 어떠한 回答이 잇슬것으로 期待된다

北平印刷局閉鎖 職工千七百不穩

【北平九日發聯合】中國第一의耕이잇는 財政部直營 北平印刷局은 今春來 經營難을 傳하고잇던바 八日 突然 財政部의 命令으로 停業閉鎖하게되엿다는 旨를 發表하엿는데 이때문에 失職하는 千七百名의 職工은 七月來 未拂給料支給과 退職金要求問題를中心으로 共産分子指導下에 形勢不穩을 呈하야 他工場에의 波及을 두려워하야 中國官憲은極度로 警戒하고잇다

人事·集會

▲宇垣總督 十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天野秘書官帶同大邱에出張 다시十一日에는 釜山松島海岸에가서 同夜着釜하는 前滿鐵總裁林伯과會見

▲張在軾氏(馬山府會議員)昨日入京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徐丙奎氏(群山府會第二部副議長)入京中本社新築落成祝賀人事次來社

八面錄

◇酒稅를 一千五百萬圓이나 내이게되얏다고、酒造協會에서 祝賀會計劃。

◇麥酒의消費도 三十萬箱子에達한다니、朝鮮의景氣는 숨어은 景氣로군。

◇病은 나엇스나 職務는堪當할수업다고、汪精衛氏가 辭表를提出。

◇『段階、時間、實力』의 三要素는 日中關係보다도 內部關係에더욱 必要치 안흘가。

◇戰線은 南에퍼고、演習은 北에서하고、三頭六臂의 伊首相도 정히 바뿌실모양。

◇東阿에서는 惡疫으로 五千將兵이 呻吟中이라니、黑衣宰相의 머리속도 뒤숭숭하시겟소。

本紙夕刊八面

銀粒 十寶丹
消化不良 懷中要藥
小賣店募集 (營業案內無代進呈)
容器付三〇〇粒入 拾錢
京城櫻井町 米田勇藥品部

洋服クリーニング 三洋舍
唐珠洞三 電光三〇六

流行歌
織女의嘆息 金福姬
그리운피리소리 孫錦紅
조기잡이 孫錦紅·李一男
明朗한님 孫錦紅
하롯밤매진정 金福姬
情다운平壤 李一男
속아도조와요 金福姬
우리들은靑春 李一男
淸新한曲調、新鮮한感覺…人氣는더욱놉하간다!
빅타-레코-드

民謠界의女王 新專屬 李銀波孃 入社第一回作品

新民謠 關西千里
(日面) 지는夕陽
오-케-레코-드

官認 大田寫眞學院 第三回生徒募集
出願締切期日 九月十九日 開學期日 九月二十五日 學則要二錢切手
三個月卒業
大田邑大興町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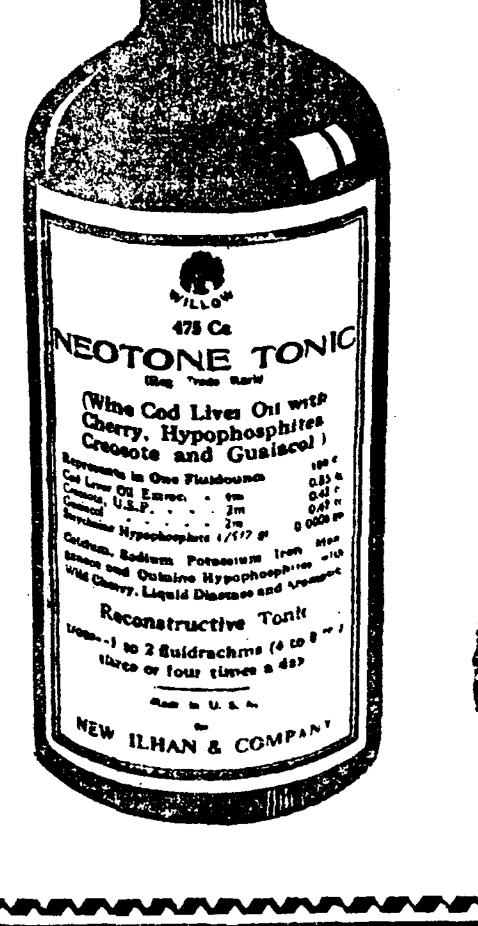
物理醫療師
生活線第一有望
最新最高物理醫學 責任養成
本院長은 我國綜合電醫의 創始者로써 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電醫에 有名한 巨頭이다
永久醫師同樣의資格을獲得하야衆人의尊敬과生活의 安定을得할者는 必히 今期에入學하라 不遠總督府令發布其後에난自由開業은 不許할것이今에 本院의 資格證書로써 自由開業이되어 永久安全하고有資格인 養成所는本院以外엔업다
◎來院하면 一目明瞭 希望者는葉書로學則請求하라(急送)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漁具
極上麻 絲綫網 五分目 四分目 捕鳥網
定價表進呈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一五六

海州肺病療養院에서도
네오톤 토닉을使用한다

海州救世療養院은 朝鮮에唯一한理想的 肺結核療養院으로 創立以來十有餘年에 許多한患者를治療하엿다。
그러면 救世療養院에서는 어떠한藥을使用하는가? 數多한 良藥을使用하는中 弊行直輸入의歐米各國에 高名한治療劑를 多數選擇愛用하옵는中 特히補肺、神經强壯、食慾亢進의 目的으로는 네오톤 토닉을 代表的으로 使用한다。此藥은現代醫學原理에 符合되는高貴原料를配合하야 調製된名藥으로 葡萄酒와恰似한佳美藥인데 過去數十年歐米各國에서 代表的補藥으로 使用하야共名聲이 滿天下에普及된藥劑입니다。
此藥에對하야 仔細안것은 貴邊醫師에게 問議하시오。

「包裝」 一폰도 (一個月分)
半갈론 (四個月分)
一갈론 (八個月分)



네오톤 토닉 輸入發賣元 柳韓洋行
京城西大門町
大連市駿河町一九
上海圓明院路

避難空地가全無한 復線同樣의現場

汽動車運轉手를引致取調

咸興鐵道慘事後報

지난 아흐렛날밤 여덟시 ○의 확인되는 조철(朝鐵)의 협십분경 함흥부본정(咸興府本町) 괴(狹軌)는 함흥역서 부터 좁오정목 함경선(咸鏡線)건로부근 넓게떠러저오다가 전긔사고지점에서 발생된 소풍객들의 대량 에 와서는 거진두선로가 복선륙사(大量慘死)사건에 대하여그 (複線)과 마찬가지로맛부터잇게

■동조참변을 일으킨지점은 함흥역으로부터 서(西)함흥역을사이로 함흥역으로부터 팔백『메돌』되는 곳으로본시 국철(局鐵)의 광괴(廣軌)선로와이번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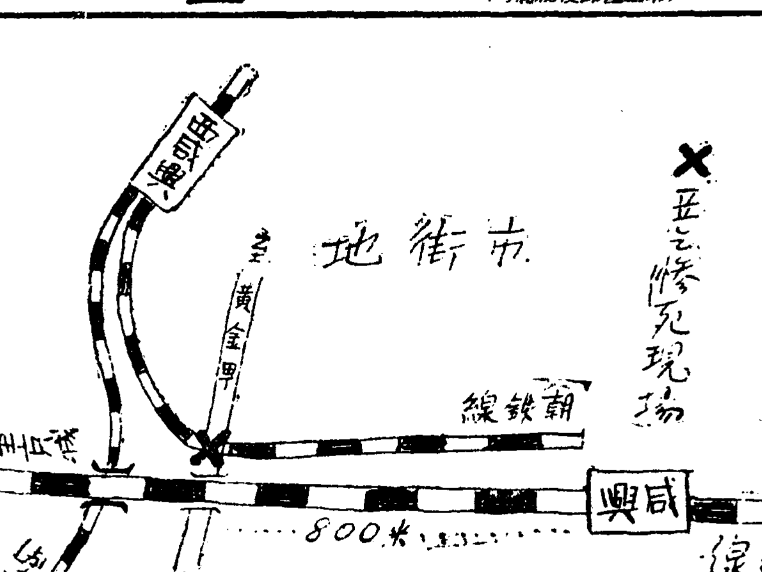
된것으로 국철렬차오백사호는여드렛날밤 여덟시삼십구분에함흥을떠낫고 조철긔동차백삼구호는 가튼시간 삼십오분에 가튼역을 압서거니 뒤서거니하고 떠나서

오든중 두차가 전긔지점에 나란이 다다랏슬지음 국철선로위에서 때맛츰 더위를피하여 몰켜서안저잇든 뭇사람이 압헤서 신호를울리며 급히 모라오든국철렬차를 보고진겁하여 그곳보담 약대여섯자나 얏게떠러저잇는조철 긔동차선로로 뛰여나리자 이선에서도 국철렬차와 가리저쪽에서 돌진해오든 긔동차가 막가트는지점에 다다럿스므로 거긔에 뛰여나렷든 사람들은거지반 몰사를당하고만것이다 그리하여 만흔사람을 희생시킨뒤에야 겨우정차를 하게되고동차바퀴에는 사람의 몸이어진 다리며 팔목이며 몸뚱이가 주룩주룩달리고 여긔저긔엔 선혈이림리하게 흐르는한편 피비린내는 그부근에몹시 풍겨서 실로 보는사람의코끄를 시게하엿다。

그리고 이번에 가엽게 불의의 죽음을당한 사람은 즉사아홉사람중 여자가여섯사람에 남자가세사람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은사람이 여자로만두사람에 현재입원중 중태에빠저 명재경각에잇는사람이 여자한사람에 남자 두사람 도합 열네명으로서 전기 입원중의 세명도 도저히 살릴희망이 업다한다。

그리고 참사당시 전기 긔동차운전수 조모(趙某)는 방금 함흥서에 인치취조중으로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실로 불가항력적인지 과실인가를 취조중이다

(安藝)『풀－』에가는 피서객을위하야 다음과가튼 림시렬차를운전하야 편의를 도으리라 하며 이외에도 경성발오전여덟시 사십오분 수원행(水原行)과 오후 두시반 대전행(大田行)의 두렬차도 안양『풀－』에서 정거키로 하엿다



十餘名轢死토록 停車不能이怪異

當局에서도原因을細密調査

鐵道初有의大事故

금번의 대사고에잇서서 일시에 십여명이 철로에 즉사하엿다는 것은 실로 전무후무한일로 대체로 전기와가티 위험한 철로선로우에 떼를지어 납량을하고 잇섯다는것은 고려할문제이거니와 아모리 기동차의관성(慣性)으로 급히정거를못한다고하드라도 사람이 십여명이죽도록 정거를못하엿다는것은 즉시해혹되지못할일로서 방금경찰서와 철도당국에서 원인을 세밀히조사하는중으로 조사가끗나지 안호면 명확한원인을알수업겟스나 참으로 운전수의불가항력이지 또는 어느정도까지의과실인지 일반은 조사결과를 중대시하고잇다

▲死亡者

沙浦町二三朴日玉의二女 曾培(二五)▲本町五丁目六五趙洙龍妹 申氏(三)▲趙洙龍의妻甥 鄭興坤의二女 七月女(一○)▲同人子 七月[illegible]▲ 本町五丁目一五○ 兪鍾俊長女 貞玉(一二)▲沙浦里 韓氏(四)▲同女後房女(七)▲本町五丁目 韓若曹(一九)▲本町五丁目劉東根長女 朴○(一三)▲同長男 秉鐵(七)

▲重傷者

尹貞玉外二名

仁川과安養에 日曜臨時列車

철도국에서는 오는십일일 일요일에 인천월미도(月尾島)안양

獨逸에서 絕讚을바든 빗나는우리靑年畫家

함부륵에서個人展覽을열은裵雲成氏

各新聞이그天才를激讚

구일에 독일(獨逸)『함부륵』박물관장한스·비스트씨로부터 본사에 도착된 서신에의하면 지난사월이십일일로부터 동이십사일까지에『함부륵』박물관에서 조선화가 배운성(裵雲成)씨의■개인전람회가 개최되엿섯는데 동전람회에는배씨의 묵화(墨畵)수채화(水彩畵)동판화(銅版畵)유화(油畵)와 판화(版畵)등이 다수진렬되엿섯다 그의 독특한 동양적(東洋的)필치는 독일관중으로 하여금 이상한 인끼를끄으러서 단지 사일간에 관중이무려수천명에달하엿스며 당지의일류신문은 이동양의 천재화가를격찬하는 장문의 찬사와 비평에그지면을 앗기지안헛슬뿐더러『함부륵』과그부근의각학교는단체로모다 래관하야그천재적 예술작품에서 동양적 정서를 마음것 흡취하엿다한다 특히 그의 묵화는 그동양화적필법으로 독일풍경을 묘사한것이 독일인들에게 큰감명을주엇스며 그의유화(油畵)는 독일백림(伯林)에서 다년간 연찬을 싸한만큼 그섬세한 필치(筆致)라던지 그의 우수한 명암법(明暗法)등은 그의아세아적 특질을 여실히 표현하야 멀리 구라파,독일에서 조선청년으로서 만장의 긔염을토하엿다는 것으로근래에 드문우리사람해외발전의 쾌소식이다

(사진은배운성씨)

겁결에 嬰兒壓殺

【海州】지난팔월사일 해주서(海州署) 사법계에서는 본적을 연백군송봉면 조산리(延白郡松峯面造山里)에 두고 현재해주읍동영정(海州邑東榮町) 칠십일번지 김상돈(金相敦)씨집 하녀로 잇는황(黃)○(三)씨란 젊은과부를검거하야 본서에서 인치하고엄중취조중이다 사건의 내용을 들으면 전긔 황씨는 지난삼일오후 십일시경 김상돈집하녀 실내에서 그전부터 터알어오든 남자 박신보(朴信甫)○와 사이에 사내애를 분만하엿는데 이로말미암아 그집에서 쫏겨날것을 겁내남어지 그아이를 죽이어 그집창고속볏집속에 은익하엿든것이 발각된것이라고한다

택시運轉手또罷業

待遇改善等數個條件提出코

內外自働車部에서

지난번 부내영락정에잇는 조일(朝日)와및 그의 자매회사인 계림(鷄林)두자동차부 종업원일동이 대우개선 봉급인상등조건을 제출하고 한때파업한이래 비록해결은 되엿다 할지라도 그남어지 파문이 부내수천『택시』종업원들에게 압흐로 미치지나 안홀가 우려되여 경찰당국은 심심한 주목을 하고사태를 감시해 오든중 부내 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에 잇는내외택시(內外自動車部)에 또파업이생겻다 즉그자동차부 운전수 여섯명은 오늘 새벽두시에 첫재 현재처럼 주인이 종업원일동에게 를 친절하게 구는대우를 개선할것 둘재 현재 최저사십원으로최고사십칠팔원까지의 봉급은 달은자동차부에서 최고팔십원 까지주는데 비하여 넘어도 현격한차이가 잇슴으로 그와비슷하게 올려줄것 셋째, 운전수들의 거처하는 방실(房室)을 개량시켜줄것등 몇가지조건을 제출하고 가튼네에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이보고를 접한소할용산서(龍[illegible])여 해결의전도가 비상히 주목된다한다

標準語査定 一讀會閉幕

修正委員에게一任

지난 나흔날부터 시외 우이동(牛耳洞)봉황각에서열린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주최인 조선어 표준어사정위원회(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제이독회는 닷새동안 토의를 진행중이든바 지난 구일까지 그 원안(原案)전부의통과를 마치엇다 이번에 선택한 표준어를 다시 심사하기위하야 아래와가티 수정위원(修正委員)스물다섯사람을 선정하야 일체를 맛기어 정리하게 하엿는데 이 독회에서 작정된것 가운데 그르된 것이나 틀리는 것이나 빠진것이 잇스면 수정위원으로서 그것을 일일히 정리할 것이며 또 전체적으로 체계(體系)를 세운후에 곳 일반에게 발표하기로 하며 마감의 경우에는 다시 제삼독회(第三讀會)까지 열어서라도 더욱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것을 결의한후 위원 일동은『만세!』삼창으로 회그 융융한중에 폐회하엿다。

狂女가自殺

시외 하왕십리(下往十里) 칠백사번지에사는 손정순(孫貞順)(二七)이라는 녀자는 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잇던중 륙일 오전두시경에 집안사람이 [illegible]틈을 타서 부억에잇던 식칼로 자긔목을 찔러 자살을 하고 말엇는데 일시 루혈이 랑자한 현장은 대소동을 일우웟다

運動競技

北朝鮮籠球 定平軍이優勝

咸興은決勝에敗

【咸興】咸興體育會主催와 吾本報咸興支局 後援의 第三回北朝鮮籠球大會는 豫定한바와 가티 八月九日 午後一時부터永信學校庭에서 無慮千餘名의觀衆歡呼裡에 同會總務李成周氏의 開會辭로 開幕되엿다 이날은 極히良好한天氣로『컨듸숀』은 比할데업시 조핫스며 遠來의 城津、永興、定平等 四個團體의 始終大接戰으로 近來稀有의 大盛況을 일우엇고 榮譽의優勝은 定平軍에 돌아갓는데 當日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主審 嚴鎭垠 副審 韓相國)

定平 45 (26 19 … 15 15) 30 城津

咸興 38 (22 16 … 8 10) 18 永興

決勝戰

定平 48 (26 22 … 16 11) 27 咸興

日本選拔庭球團 全大邱戰에勝捷

【大邱】全日本 選拔庭球團一行은 八日午後三時부터 大邱公設(코－트)에서 全大邱軍과 對戰한바 이날의戰績은 다음과가티 日本選拔軍이 勝捷하엿다

【第一라운드】

【全日本】		【全大邱】
嵯峨 伊藤	4…2	朴 能勢
松本 土居	2…4	李 西原
安井 山名	4…1	鈴木 吉武
山邊 奧津	5…3	申 金
津谷 藤原	4…0	崔 柳
川端 石川	5…6	林在洪 矢田
河野 岩崎	5…3	木村 土井

【第二라운드】

嵯峨 伊藤	4…0	李 西原
安井 山名	3…5	林在洪 矢田

【第三라운드】

山邊 奧津	4…2	林在洪 矢田

男女水泳講習會 十一日、洗劍亭에

水泳을 普及키爲하야 彰義門外洗劍亭 金秉熙水泳場에서 八月十一日부터 同廿日까지 男女水泳講習會를 열터이라는데 講師는 成俊德、尹弼求兩氏라하며 講習時間은 每日午前十一時로 午後六時까지인데 特히 講習料는업다고하는바 希望者는 多數參加하야주기를바란다고한다

馬術競技會 全京城對日本學生

日本學生馬術協會에서는 來十八日 京城에서 全京城對 日本學生의 馬術競技會를 擧行케되여 去七月二十八日에 開催된 第七回 日本學生馬術競技의成績에依하야 代表選手十名을 推薦한後 監督 木下光二氏以下一行은 來十四日午後一時半 東京驛을 發, 來京키로되엿다。

扶餘體育會蹴球 留學生軍惜敗

【扶餘】扶餘體育會主催의 東京公州 京城等地의 留學生을 網羅한 扶餘地方 學生歡迎蹴球戰은 四日午後三時부터 當地의 [illegible]扶餘體育會運動場에서 全扶餘軍과對戰한바 結局留學生軍은 實力戰不及하야 一對零으로惜敗하엿다한다

關北蹴球大會 全城津軍優勝

【城津】城津公立普通學校校友會主催의 第四回 關北蹴球大會는 지난三日正午부터 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參加八團體로써 炎天임에도 不拘하고 四日까지 白熱戰을 演出한結果 最後決勝戰에 날어가 全城津軍이 吉州軍을 六對一로 擊破하야 榮光의 優勝旗를 獲得하엿다한다

吉岡選手招聘 羅南서講習會

【羅南】咸北道體育協會에서는 東京文理科大學의 吉岡選手를招聘하야 十日부터 三日間 羅南中學校運動場에서 學校敎員 中等學校生徒 靑年團員等約百名을 爲하야 運動競技講習會를 開催할터이라한다。

都市對抗野球決勝 雨天으로延期

【東京電通聯合】都市對抗野球最終日의決勝戰인 東京對川崎戰은 十日에 擧行코저 하엿스나 降雨로因하야 十一日로 延期하엿다

唐山附近에서 同胞三名被殺

모처착전에 의하면 방금북중국의 일본군인대의 공격사건에 다시 북중국일대의 공긔가매우 험악하여가서 내외의주목을 끄을고 잇든때에 지난륙일에 북중국당산(唐山)에서 조선인두명이 어떠자에게 총살된것을 발견하엿다한다

이때문에 마침긴장하고잇든일본수비대와 헌병대에서는 사태를극히 중대시하고 총살된자의 신분과 기타에관하야 자세한 조사를하고잇다한다

原因調査와 吊慰方法講究

朝鐵幹部等現場急行

별항대참변을 이르킨긔동차백삼구호의 소유주인 부내고시정 조선철도회사(古市町朝鐵會社)에서는 전긔와가튼 보고를접하고 오늘아츰아홉시경 전긔 조철회사로상에서 관계당국자들이 그 원인의 구명과 밋참사자의 유족들에게베풀 조위방법등을협의하는중으로 그회의가 끗나기를 기다려 서무과장(庶務課長)과긔차과장(汽車課長)이 현장에급행하리라는데 조철당국자가 참사자의 가족들에게다할 조위방법의 여하는 주목된다한다。

鴨綠江氾濫은 鐵橋가一大原因

現鐵橋位置는下流中最峽流

土木當局根本策考慮

이번 압록강(鴨綠江) 하류의신의주(新義州)안동(安東)량도시의 대수해의 참담한 상황에 대하야는 루보한바와 갓거니와 총독부당국에서는 이 수해의 근본대책에 대하야 조사연구중이라는바 조선측의 가장중대한문제는 신의주의 방수재방의 확충강화를 도모함은 물론이어니와 이보다더 중대한 문제로는 현재의 압록강 철교의 위치가 압록강 하류로서는 가장넓비가 좁은곳인데 여기다가 교각(橋脚)을 여러개 세워 가교한때문에 압록강이 증수만 하면물이하류로 자유롭게 흘러내리지 못하야 신의주제지회사공장의웃쪽으로 물이넘어 신의주부외를 잠부칠수하며 동시에 위화도(威化島)도 잠부칠수하여버리게되다한다 그럼으로 당면한 긴급한 문제는 발서 철교로서 낡거지고 현재의 교통량으로 보아서도 새로가교할 필요가잇는 압록강철교를 현재의 위치보다조금더상류에 최신식긔술을 다하야 가교하거나 또는 아주『턴넬』로 개착하거나하는것이 필요하다하야 안동신의주 량지방민도 요망할뿐아니라 총독부에서도 철교를 새로가설할의향도 잇는차이라 이에대한 구체적연구를하야 압록강의 홍수대책과 교통개선을 도모할터이라한다

流血亂鬪四題

繁昌한病院과留置場

피투성이 싸홈이네건―시외신당리(新堂里)일백칠십이번지의일배구 호에사는 리수덕(李壽德)(二四)이라는 녀자는 구일오후여섯시경에 자긔집들에서 동번지 일백칠호에사는 지상운(池祥雲)의안해되는 임신삼개월의 김순이(金順伊)(二六)와 사소한 일로 싸홈을하야 김순이를 넘어트리고 배를타고안저서 이를란타하여서 밋헤서 졸도하고 인사불성에이르게 하엿는데 피해자는즉시 부민병원에 입원식혓스며가해자는 소관 동대문서(東大門署)로인치되엿다

×

구일오후네시반경에 시내종로(鍾路)오정목 삽백팔십오번지 안로상에서 양주군와부면릉내리(楊州郡瓦阜面陵內里)림은호(林殷浩)(三)이란 녀자가 괴산군소수면옥현리(槐山郡沼壽面玉峴里)서올라온 유재수(劉載永)(四)라는녀자와 싸홈을하야 안면에전치삼주일간의 중상을 입혓는데 피해자 유재수는 부근 창경의원(昌慶醫院)에 입원하고 가해자는 동대문서로 동행되엿는바그원인은 전긔림은호에가 유재수를 고용녀로 소개해주기로 약속하여던바 고용유재수가 약속을 리행치안허 소개료를 못밧게되데 분개하야 그와가티 구타한것이라한다

×

구일오후 여덟시반경에 숭이동(崇二洞)이번지림재성(林在成)음식점에서 사직동(社稷洞)일백이번지 정길택(鄭吉澤)(三二)이가 술을먹던중 숭이동 사십구번지 정관우(鄭寬祐)(二〇)라는 [illegible]인을 구타하야,턱에세치가량의 찰과상을 입혓다한다

×

시외도암리(敦岩里) 사백오십팔번지의 신일호 정복균(鄭福均)(二九) 공긔산(孔起山)(二七)과 리현재(李顯栽)(二二)는 구일집안로상에서 동리사는고보경(高寶慶)(二〇)을 협력구타하야 전치십일가량의 상해를입히고 소관동대문서에 인치되엿다

楚山對岸土兵이 帆船十二隻襲擊

交戰三十分後에退却

【警務局着電】구일오전구시반에 계통불명한 반마군이십여명이 평북초산서룡상(楚山署龍上)출장소 직대안관전현(寬甸縣)제오구 전자구촌백채지(碾子溝村白菜地)에나타나 때마침상류에향행중이든 [illegible]주인 범선십이척을정지식히고 그배를빼아서타고 조선에 침입하려는것을 발견한룡상출장소감시소원 두명이 사격을하자 그총 소리를듯고 출장소구보전(久保田)순사부장 이하 륙명이 출동하야삼십분이나교전하야 반마군은부상자 이삼명을 내이고버들나무 스폿가운대로 도망하엿다 이급보를접한 초산서 련담(蓮潭)주재소와 용암(龍岩)출장소에서 다수경관이 추격하엿스나 그들은 해교(海蛟)일파의 삼십여명이것은안엇스나 이미 대천구(大川溝)바면으로 도망한후이엿섯다

天氣豫報

東風晴一時曇

颱風은 본도남방에서 하나는濟州島의 西南에 다른하나는關釜海峽에 잇서서 中心은 七四四耗로 發해저서 東北東에 進行中이다 이로인하야 朝鮮海峽은 風雨가 强하다 高氣壓은 東北地方으로부터 日本海에 擴大中이다 朝鮮의 東岸과 南朝鮮은 曇天으로 全朝鮮一帶에 東風이 强하다 滿洲는 晴天大阪地方은 雨天이고 其他는 曇天이다

昨日 最高 三一、○ 最低 二二、五

今日正午 二九、七

八月十日부터 ······ 二層特賣場에서

!!夏物一掃大處分!!

前例에드믄大勇断 一時半價額品山積

[illegible]提供品

▲麻샤쓰類 一·五○錢을·七五錢에

▲와이샤쓰類 二·○○錢을一·○○錢에

▲파나마帽子 二·五○錢을一·二五錢에

▲핸드백 一·○○錢을·五○錢에

▲스텐쓰봉 一·五○錢을·七五錢에

▲紳士淑女短靴 七·○○錢을三·五○錢에

三割引提供品

▲포쁘린와이샤쓰 一·五○錢을一·○五錢에

▲카ー덴 ·四○錢을·二八錢에

▲테불크로ー스 ·六○錢을·四二錢에

紳士淑女洋服特價品

▲紳士淑女夏洋服及코ー트各種

▲男女小學生夏服及防水반또各號

▲어기모기장及함목구

十錢均一

▲砂器접시 五介

▲〃 공기 三介

▲유리합 一介

化粧品의特別奉仕

▲一圓以上에粗品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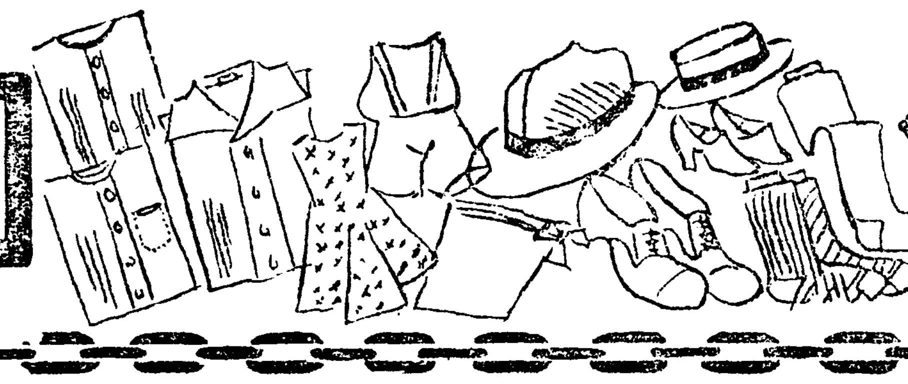
여름夜具次特價提供

韓山白苧 一疋 十一圓을九圓에

舶來모니루學生치마감 一件 三圓을一圓八○錢에

핫상구래부學生치마감 一件 三圓九○錢을三圓에

◉地方注文은通信販賣部로



和信

振替京城三九六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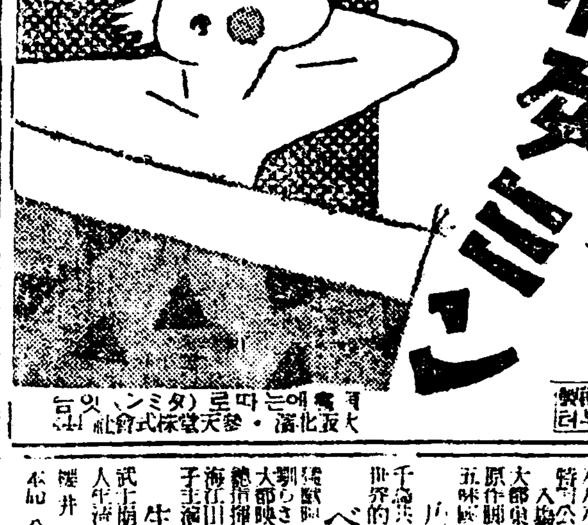
무서운淋疾을 네오지린(ネオヂリン)으로退治하라

朝鮮總代理店 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振替京城四五七番

배를채우지마라! 차게자지마라!

腹痛食傷에잘듯는

腹痛タミン (다민)



[illegible]

蛔虫에는데마잇고잘듯는

珊篤尼湼菓子 (산독이날과자)

蛔虫이寄生하야 배가압흐고 [illegible]

珊篤尼湼菓子를먹이시오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cinema advertisements]

[illegible]

독사에게물린데 풋감이 특효약

독충에게물렷슬때

여름에는 다른때와달라 물것이 만허 밤ㅅ잠을 잘못자고 오룸에 헌데가생겨 욕을보지만 집에서 뿐아니라 들에서라도 흔이 독잇는 벌레에 물려 큰욕보는수가만습니다 벌레도 벌레러니와 산에나 들에 나갓다가 독사뱀에 물렷다가는 그처럼큰일은업스니 서늘한곳을 찻는라고 마음노코 숩사이나 그늘진 꼿을 드러갈수업습니다조선에서나는 독사중대개는살무사인데 이것에 물렷슬때는 우선제일먼저 수건이나 고무줄로 그부분을 짝동처매여 독이온몸에퍼지데로 순환되지안토록하고 물린자리는 엽으로 힘것피를빨라내어야합니다 이것은 웬만한사람도 잘아는바이지만 응급처치로는풋감(柹―칠딩그지 안은것을 찌어서 물린자리를 엿는것이 제일좃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땅군(뱀잡는 사람)들은 뱀잡으려 산에갈때에 감의집(풋감것)을짜아 대통에 너허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만일 살무사에게 물린 경우에는 물린자리를 나빠리로 무러뜻고서 피를빨라낸다음 그감의 집으로 씻서낸다합니다 사실로이 방법이 효과가잇고업는것은―살무사의 독을 시험관(試驗管)에너코 거기에 감의집을 너허보면 그독이 금방업서진다합니다 그리고입으로물린자리를 빨는데대해서 위험하게생각하는분이잇슬지모르나 혈관에 직접드려가서 큰작용을이르키는 독도 위ㅅ속(胃)에 드러가서는 라액과합처서 소화가되여버려 아모[illegible]니와 엇잿든산에 갈경우에는 풋감을 준비해가지고 가는것이 조흐며 만일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응급처치를 한다음 곳의사에 달려가는것이 상책일것입니다

◇벌에쏘엿슬때

그다음 벌에쏘인경우에는 벌중에도 왕벌에게 쏘이면 어린애는 죽는수도잇고 어른들도 몸시알른수가 잇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암모니아」수나 나발꼿(喇叭―暴丑)입사귀를 지쩌어서 바르는것도 조코 날감을 쪼개어서 문지르는것도 조습니다 그런뒤에 집으로 도라와서「암몰」과 물을 반반씩 석거서그것으로 습부(濕布)를 하면 아픈것도 차차 사러지는데 정안틈때에는 어름찜질을 해도 무방합니다 (수건에 물끼가 마른뒤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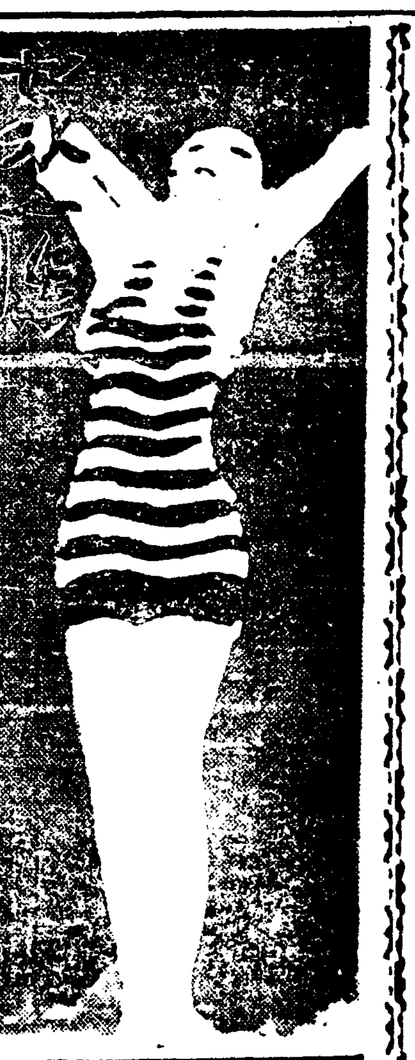
그외에 모기、빈대에 물린때는 긁지말고

石炭酸 二그람
薄荷腦 一그람
알콜 一〇〇그람

이 세가지를 합해서 바르면 가려운증이 업서집니다 물린자리가 몹시 붓고 가려울때는

亞鉛華 一五그람
石炭酸 一그람
도라가간드 五그람
그리세린 五그람
水 一〇〇그람

을조제해서 바르면 조흔데 이약은 비단 모기빈대뿐 아니라 거미 송충이 기타벌레에게 물렷슬때도 효과가 잇습니다



젊은이들이어 안해를어드랴거든

―『참고될말슴을살짝드리지요』―

영국사회교육가『이―린에리아』부인의말

꿈속가튼 약혼시기에서 현실적인 결혼생활로 드러가는것이 현대사람의 결혼하는데에 반드시 밟어가는길이라고 할수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중에서 아모리 장구한시간의 교제를하고 속속드리 서로잘알엇다고한들과연 결혼한뒤에 보아도 약혼햇슬때나 조금도 다름업는사람이엿습니까? 일즉이 서로 얼골도모르고

부모의명령에만

따라서 결혼하든시대보다 서로 오래도록 교제도해서 제법리해가잇는 연애결혼이라는것을 하는 현대인에게 리혼하는 수효가 더만타는것은 비록 그때와 지금이 결혼과 리혼의 자유스럽고 부자유스러운 도뎌적차이는잇다고하드라도 오히려 이러한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젊은남녀의 교제라는것은 아모리 그시긔가 오래다고하드래도 결코 인격으로 상대자를정확하게 인식하는

눈은뜨이지안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연애는 맹목이라고하는말이 여기에서 생긴것인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취급한 영국의『이리―나·에리아스』라는 부인은 젊은남자들에게장래에 자긔안해를 삼을녀성의 성격이나 마음속을 엇더케하면 잘드러볼수 잇슬까하는것을 연구해서 매우 참고될만한 의견을

발표하엿슴으로

잠간 소개하면 다음과갓습니다

첫재 무엇보담도 자긔자신을 제일 잘이식을 해야할것은 물론이라는것을 전제하고나서 조목조목으로 갈려서말을햇는데

一、당신이 상대되는녀자와 교제하는동안에 과거의과실을고백하엿슬때 그녀자는 냉소를 하엿습니까? 그러치안흐면안해와가튼 동정적태도로서 위안을하여주엇습니까?

二、또는 당신이 무슨 적은일에대해서 언쟁을할때 그녀자는어듸까지든지

바바하는대도엿

습니까? 그러치안흐면 마음을곳치고 순종하는 태도엿습니까?

三、또는 친구들에끼울녀서밤에 외출을 하게됩니다 그때 그녀자는 그말을 듯고 무슨 불평을 말하지안햇습니까?

四、『무엇을 사드리겟슴니다』할때 그녀자가 요구한것은 꼿(花)이엿습니까? 의복이엿습니까? 극장표엿습니까? 그러치안흐면 아모것도 실타고 하엿습니까?

五、그녀자가 자긔

친구들과모혀서

세상이야기를할때 남자의 생활이나 성격을 해부한다든지 남의 월급을 비교한다든지 가정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하지안헛습니까?

대체로 이러한것에 말슴하면 여러분도 이 여러가지 설문(設問)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짐작하실줄로압니다 그러면 다음에 남자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안허서는 안될일이잇는데

一、당신은 그녀자와

무슨경기를할때

때로는 그녀자에게 입부러라도 저드릴만한 아량을 가젓습니까?

二、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그녀자에게서오는 반박을 드러드릴만한 넓은 마음을 가젓습니까?

三、때로는 가정에서 그녀자의 동모가되여서 가티 노려줄만한 동정심을 가젓습니까?

四、끗으로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안해에게 소개하는 수고를 이저서는안됩니다

이러한것을 다말한다면 한정이업겟지마는 이러한 사소한데도 이문제와 대답을 스사로생각해본다면 새로히 깨다를것이 만흘줄로압니다。

권투선수『베어』 결혼생활신이일

얼마전까지 세계중량권투선수권보지자이든『막스·베어』는 한창 인끼가 잇슬때『메리·에렌·사리반』이란미인과 연애를하야 최근에와서 결혼을 하엿섯다

그런데 결혼한지 열이틀만에덥커리혼을 하엿스니 결혼하기전의 무슨 비밀한 일이 탈로되엿다거나 한것이 아니라 두내외의 종지(宗旨)가 맛지 안는단것이 리유이다 즉『베어』는 유태인의 피가 흐르고、『에렌』은『로―마、카톨릭』교도이어서 비극의 원인은 여기 잇다 하지만 두사람이 고등법원(最高法院)판사아페서 지난륙월이십구일날 결혼식을 카톨릭교 사원에서 거행할때『베어』가『에렌』에게 이러케 선언한말까지잇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카톨릭신자가되마』

그러나 그때는 그때 지금은 안해의신앙생활에 견데어 날수업서 리혼하게되것이이다。

…………소 나 비…………

世界文藝童話集

별의아들 ③

英國 오스카·와일드 作　崔秉和 譯

七

그래서 어머니가 증거품인금빗외투와 십년전숩속에서 불한당을맛나서 어린애를 일허버린 이약이를하아도 별의아들은 고지듯지안헛습니다。그리고 나종에는

『가령 당신이 참말어머니라고 하드라도 거지꼴을하고오는것은 아니오는것만 갓지못해요。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러오는것이닛간』

하고 말하엿습니다。그리고 즉시 이곳에서 멀―리 떠나가라고 소리를질넛습니다。

『……그러타면 멀리떠나가겟다 그러나 꼭한번이라도조흐니 나에게입을맛추워주시지못하겟니? 너를 차즈려다니기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생을하엿는지 모르겟다』하고 어머니는 말하엿습니다。

『별소리를다듯겟네……거지에게 입을 맛추느니 참아리 독사나 두겁이에게 입을맛추는것이 낫지』이것이 별의아들의 대답이엿습니다。

어머니는 슬품과원망을 갓득 안고 숩속을향하야 힘업시 가버렷습니다。

八

그런데 이별의아들의 무서운 죄의갑이 아니올리가 업섯습니다。그는 두덜두덜성을내고 집을뛰여나와서 맑은시내엽흘 지나갓습니다。그때 문득 물에빗취인자기의 얼골을보고 그는깜작놀나서 잡바질번하엿습니다。자기의얼골은 어느사이엔지 지금까지의 아름다운얼골과는 아조딴판인 두껍이와가티 울퉁불퉁한 미운얼골로 변해버리엿습니다。그리고 왼몸에는 독사와가티 비늘이 왼통생기엿습니다

『아아……』별의아들은 비로소 풀밧에몸을 내던지고 후회하엿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나의 죄의 갑시다。어머니를 어머니라고하지안코 쫏차버리엿다。아! 나는 엇더케 무서운일을 저즐넛슬가。나는 이제로부터 왼세상을 도라다니면서 어머니를 찻지안흐면 안되겟다』이러케결심한 별의아들은 즉시 제일먼저 숩속으로 뛰여드러가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불넛습니다。그러나 아모대답도업섯습니다。별의아들은 땅두더쥐를 붓잡고 무러보앗습니다。

『너는 땅속으로다닐수가잇지。우리어머니가 땅속에게시지안느냐』그러니간 땅두더쥐가 대답하엿습니다。

『당신은 나를 장님을 만드러놋치안엇소。눈이먼 나에게 무엇이보이겟소』별의아들은 두번재밝안산새에게 무러보앗습니다

『너는 놉흔나무우를날너서 왼세상을 바라볼수가잇지。우리어머니가 안보이니』밝안산새는 대답하엿습니다。

『당신은 나의날개를 떼여놋치 안엇소。나는 날을수가 업습니다』별의아들은 또 도두리나무에 단혼자서 살고잇는 다람쥐에게 무러보앗습니다。

『어느곳에 우리어머니가 게신지 너는알겟지』다람쥐는 대답하엿습니다。

『너는 우리어머니를 죽여버리엿지。이번에는 너의어미를 죽여버릴라고 찻고잇느냐』

金剛키네마作品 銀河에흐르는情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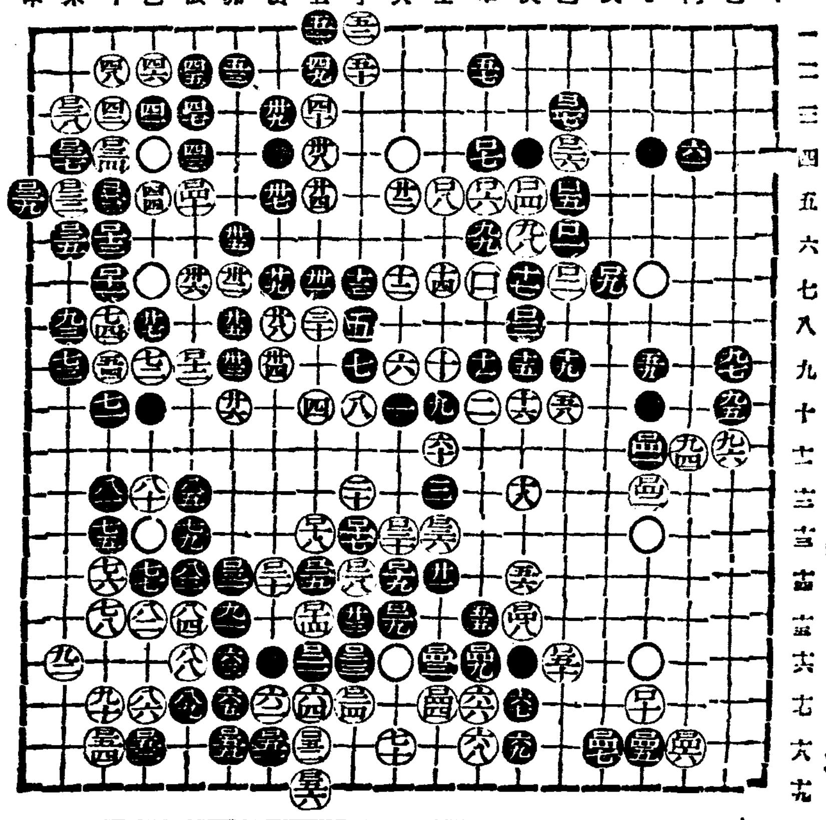
오는가을에는 조선영화가 수두룩히 나올모양인데 벌서 그촬영이끗나고 방금 테스트를 행하고잇는것이 멧개되다。『銀河에흐르는情熱』은 그중의하나―스틸은 이영화의 두장이다。

原作·脚色·監督安鍾和 撮影李明雨 出演李源鎔 申一仙 李慶善 金蓮子 朴濟行 柳新芳 沈影 朴醫子 金貞圭 李銀

本社主催 圍碁對局譜【8】

白 閔仲植
互先戰
黑 柳鎭河

【●三三】午의五
【○三四】午의四
【●三五】未의六
【○三六】壬의十三
【●三七】未의四
【○三八】未의三
【●三九】申의五
【○四〇】辰의五
【●四一】丁의十一
【○四二】丁의十二
【●四三】壬의十六
【○四四】壬의十七
【●四五】丁의十八
【○四六】丙의十八
【●四七】戊의十八
【○四八】庚의十五
【●四九】辛의十六
【○五〇】己의十六
【●五一】寅의十八
【○五二】丑의十八
【●五三】巳의十八
【○五四】午의十八
【●五五】卯의十八
【○五六】丑의十九



◇蔡極文氏評

黑이 辛의 十三으로 除하고 白이 辛의 十四로 斷한후 乙의 十八로 黑이 越點을 試하면 白이 黑을 越送하고 맘것이다 만약 越送치 아니코 丙의 十九로 白이 抽하면 黑은 丙의 十七로 黑은 丙의 十六 白이 不得已 甲의 十八로 黑越點을 團하고 黑은 乙의 十九로 抽하여야 된다 白이 甲의 十九로 黑二點을 打取하거든 黑이 乙의 十六으로 抽하면 白이 劫을 難免이다 한번 硏究할일

다리가려운병

問 소생은 약사년전부터 만추가되면 발생하야 초춘까지가는병이 잇습니다 만추가되면 넙적다리에 약간뽀족뽀족 생겨서 가려우며 심히굴그면 물가튼것이나오면서 퍼집니다 그리고 정다리에 퍼집니다 자세히쓰서서 곳앞여주시기를 바랍니다 (鍾城 金承俊)

答 무르신 말슴과 가튼병이 진찰을 아니하고는 잘알수업습니다 혹개선(疥癬)이 안인가합니다미치갈는(바이엘회사제)이라는약을 발너 보시시요 개선이 아니드래도 말슴과가튼 증세에는 유효할것입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成鎭)

十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정다운四兄弟」 元裕珏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常識講座「日常生活과寫眞」(三) 申榮均
◇同八時 趣味講座 朝鮮漫布史話(三) 文一平
◇同八時三〇分 流行歌今昔 一、갈매기신세 二、幻影 三、외로운꿈 四、南江行 五、휘ㅅ바람 六、梨園哀話 七、沙漠의恨 高福壽
◇同九時 歌詞 O·K재미리·뮤―직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蕉紅 趙點紅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連續怪談 鬼火(二) 庾秋岡

十一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古談 同心緖 李雲林
◇同一時二〇分 全國都市對抗野球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서울밤 二、故鄕집 三、서울구경 四、봄 五、너웃것느냐 六、[illegible] 七、어린동무
◇同六時五五分 [illegible]
◇同八時〇〇分 좀더오、드라마 마당×全一景 金泰治
配役 [illegible]
效果 效果班 放送劇協會
◇同八時四〇分 童謠外 一、흥타령 二、아산타령 三、[illegible] 金泰運 李命吉
◇同九時 映畵이야기 南風
◇同九時三〇分 俗曲 一、念佛 二、길念佛 三、山念佛 四、靑春歌 五、京아리랑 六、[illegible]아리랑 洋琴崔壽成 笑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十二日 (日曜)

◇午後〇時五分 (東)洋 [illegible]
◇同一時 婦人時間 洋裝에對하야 (一) 任貞爀
◇同六時三〇分 童話 金福鎭
◇同六時五五分 經濟解說 產業 뉴―스 朝鮮中央日報編輯次長 裵成龍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一) 自給肥料에對하야 南昌植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1、前奏曲集에서 아나카프리의언덕……드뷔시作曲 2、前奏曲……라하마니노프作曲 3、夜想曲……쇼팡 作曲 4、舞踏會의招待…웨―버作曲 李光俊
◇同九時 古談 尹白南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泰平 二、沈淸歌中 沈峯士皇城올나는데 趙錦玉 鼓手 丁元燮

曆

八月十一日(日) 舊七月辛癸未(大)十三日 己未·火·昴 閉
▲立秋八月(舊七月初十日)
▲末伏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舊七月廿六日)

短篇小說 求婚行 (八)

嚴興燮 作　高一 畫

『가려 병수나 때하지 안흐려나?』하고 R군은 나를 잇그르려 한다

나는 종호에게 너무미안햇섯을 생각하고

『밧게 기다릴테니 먹고나려오게!』

하고는 종호군과 아래로 나려왓다

나는 거이 본능적으로 종호군의표정을 삷이기에 주력햇다 종호군은 별로히 뒤를 도라다보지도안코 내엽흘 따려나려오면서 언제나하는 버릇으로 내엽구리를 쿡찔으며

『―게 누구여? 예분데……』

하고 가만히 입을연다

『가만잇게、내 중신해줄터이니…내려오거든 소개할테니말야! 좀쾌활하게굴게!응?』

나는 일변 종호에게 예비지식을주어 부자연을 경계하고단속하면서 그들남매가 나오기까지를 마음편 P백화점처마밋테서 기다리고 잇섯다

이윽고 R군남매가 층계를걸어나온다。R군이 압흘스고 R양이뒤에서서

나는 이순간 무엇보다도 종호군의 태도에 주의가 쏠리엿다。

그래서 종호군의 태도가 자연스럽게、그다지 상대자에게환멸을 늣기지안흘만큼 순조로전개되여 나간다면 비록 경우는 우연적(偶然的)이나 좀 뜻깁흔 소개를 하려햇다 무엇보다도 일행의 긔분(氣分)을 간격이 적게 융합식히자면 나의 사교적수완이 범상치안흔 놈이라야 할것이다

좌우간 나는 먼저 평범하게 R군과 종호와의 사이에 인사를부칠필요를 늣기엿다。

그들은 내소개에 비로소 긔분이 융합된듯이 손을내밀어악수를한다。

한편에 우둑어니 서잇는 R양!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종호에게 소개할가? 실흔 의욕(意慾)도 업지안헛스나 그리는것이 너무도 로골적가튼 내 해석에서 잠간 주저하엿다。

내가 가운데 스고 R군이 내외편、종호군이 내 바른편에 서서 거이 한일자로 거름을 옴기자 R양은 R군의 조곰뒤에 떠러저서 따려온다。

나는 R양에게 미안하엿다。그러나 이러케 입부러 긔회를 만들어 야도 잘되지안는수가 잇는데 오히려 오늘의 이 긔회는 종호군에게 잇서 또R양에게 잇서 비록우연적이면서도 뜻깁흔 긔념비적(紀念碑的) 긔회가 되엿스면하는 로파심이 스르르 내머리를 지내처자 나는 어느틈에 빙그레웃으며 R양의 엽굴을 힐긋도라다보앗다 R양도 따려서 빙긋웃음을띄우고 손수건으로 입을가리면서 고개를 아래로 숙으린다。

M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들남매는 삼층으로 무엇을 사려가고 종호와나는 이층에서 신간잡지를 읽고잇섯다。

『종호 돈가진것 모두얼마나되나?』

『얼마안돼!』

『차ㅅ(茶)갑도 안돼?』

『오십전 밧게 업는데…』

『이리내게!』

나는 종호에게서 오십전짜리를 바더서 내지갑에다 집어너헛다

R군이 물건을 사가지고 나올때를기다려서 나는 명치제과로 일행을 잇끄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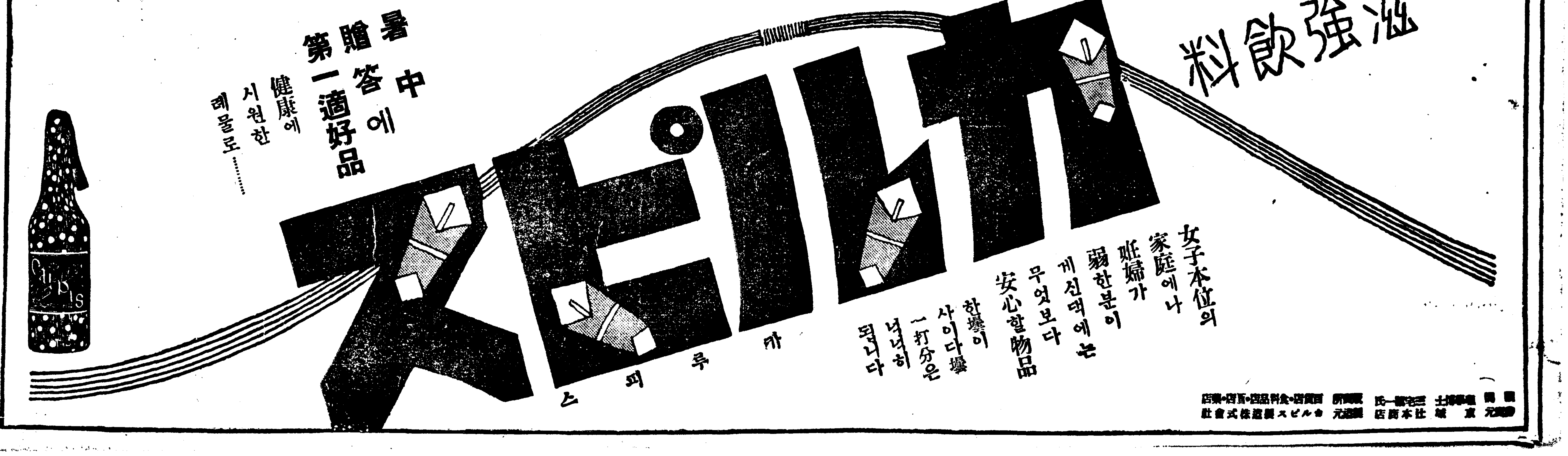
될수잇는 대로 종호와 R양 그리고 종호와 R양사이에 엇던 막연하나마 실낫가튼 유긔적인 감정의 줄이라도…이긔회에 매처질수 잇다면! 하는 나의 계획적인 푸란보다도 그들이 모르는 종호와가티 짝지여 백화점까지 슬슬 뒤따려다닌다는것이 맛치무엇이나 어더먹으려고 그러는것과도가튼 축스러운 긔분과도 가텃기때문이다。

나는 녀급에게푸룻·폰치를 주문햇다。

이상하게도 안집안집이 R군과내가 서로 건너다보고 안게되자 저절로 종호와 R양이건너다보고 안게되엿다。

종호는 아모말업시 안저서뚝바로 R양을 치어다보지도못하고 아래를 나려다봣다가 벽을 처다봣다가 혹은 머―O하고려코―르소리가 요란히들리는 거리쪽을 흘기끈한다。

마치 어느시골서 처음서울에 올나온사람이 어리둥절 하는것처럼 종호의태도가 너무도 소박(素朴)한데에 나는너무도가슴이 조마조마하는 틀마당을늣기엿다。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電氣株式會社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郵船株式會社

株式會社朝鮮取引所

不二興業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朝鮮鐵道株式會社

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京城出張所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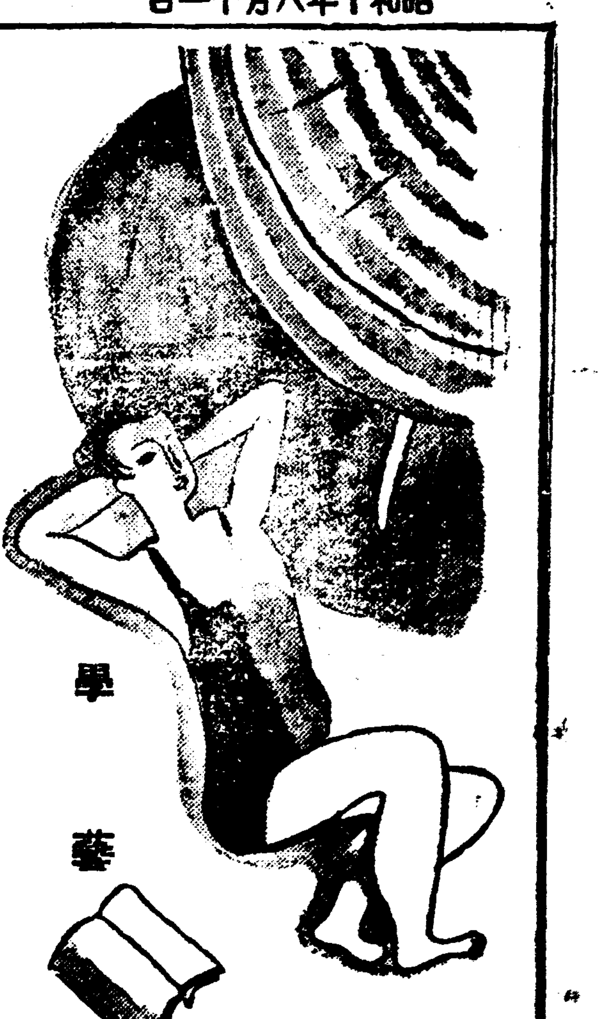
三菱商事株式會社京城支店

朝鮮運送株式會社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京城販賣事務所

朝鮮信託株式會社

住友合資會社京城販賣店



文壇時感
朝鮮文壇의力量
—文學의生活化와「바라이틔」—
③ 金晉燮

文學을 겨우忘却할수업는程度에 잇서서 아모關聯도업고 아모因果도업는 實로너무나閑散한 若干의 文學行動이 偶發的으로 新聞雜誌에 發表되므로 依하야 우리의 文壇이 虛妄한 歷史를 지여올려가며 잇는것을 우리는 否定할수업는것이지마는 그럼으로 우리는흔히現文壇에 寂寞을 늣기는 나머지 이곳에 일즉이 몃篇의詩歌、몃篇의小說을 남기고는 어데론지 永遠히 가버린 『半生詩人』에 對한 가지가지의

斷片的 追憶을 心頭에 아니가질수업는듯보인다。

近來 往往히實力에 잇서서 現在의作家들보담 낫다고 認定치 안흘수 업는 그때의 作家들의 作品뿐아니라 오날의 作家의 녯날作品等을 어떤名目下에 或種의 雜誌가 再錄하고 잇는것은 確實히 現文壇에 話題가 缺乏되여잇슴을 말할뿐이아니라 그것은 또한 文壇自體에 進化가업는것을 例證하는것이라 볼수도잇다 惰氣滿滿한 文壇의 空氣를깨트리기爲하야 輸入된 通風的形式이겠지 話題가 업서 困難을겪고잇는 現文壇에 요사이 話題를 活潑하게 提供하고 잇는것에 各新聞의 評論이잇다。評論이 評論固有의 銳利한 知性과 論調를 가지고 일즉이 누구의 눈에서도 看過된 文壇의 稀薄한、現象속에 投身하야 話題를 不斷히 探掘하고잇는 功績은 到底히 無視할수업는것이지만 그러나 評論을 한篇이라도 읽은 사람은 그것이

發掘된바 話題로서 興趣깁다 할수잇기보담은 얼마나 이文壇에는 話題다운 話題가 업는가를더욱 힘세게 늣기게하는 事實을또한 肯定치 안흘수 업슬것이다。그것은結局 우리가 얼마나놀나운눈을 가지고 속속드리본다하드래도 元來 文壇에나타나는 作家의 行動이 單調한지라 엇지써 抽象을버슬수잇스며 엇지써 概論에빠지지 아니하랴! 여기서 우리는 또한 文壇의 沈滯와不振이란 오즉한 個의 永遠한話題에 부닥치지안흘수업다 大體 朝鮮文壇은 언제까지나 모든文學行動이 緊密히 結合되는바 하나의 必然한 大道를찾지못하고 이가티도 서로 分離되偶然하고 孤寂한 小路에서 彷徨치 아니하면 아니될까?

그것은勿論 大端히 쳡업는

酬酌이지만 여기서나는 한 個의허된 空想이나마 가저보랴고 한다。朝鮮에서는 嚴密한 意味에 잇서서 文學的生涯라는것이 잇슬수업다는것은 大端히 不幸한일이다。듯는바에 依하면 金東仁氏는 原稿로서 먹고사는 朝鮮唯一의 作家라한다。두말할것이업시 이먹고산다하는것의 概念에는 여러가지의 階段이 잇슬수 잇슴으로 어느程度의 收入이 어떠한 方法으로 드러오는가를 알기前에는 文學이 生活이 될수잇는 一好例를 여긔서 볼수잇다 할수업는 것이지만 如何間에 이것은 우리文壇이 가질수잇는 一話題임에는 틀림업다。그리하야 또 原稿로서먹고살수잇다는것이 곳 그에게文學的 生涯가잇다는것을 意味할수업슴은 두말할것이업다。그러면大體 어떤作家에게 文學的生涯가잇다는것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그것은 그作家에게 生活의道가 열리엿다는것만을 意味치 안는다。그보담은 차라리그에게

文學的 活動의 不斷한展開가 아모支障업시 그의生命과 더파러步調를가티 할수잇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면 아니된다。假令 그의原稿가 곳 生活이될수잇는 朝鮮서는 極히 드물게 볼수잇는 幸運을탄 李光洙氏 尹白南氏等의 文學이 果然 朝鮮文壇이라하는異常한 土壤속에서 어떤 種類의展開를하는가 여가고잇를 보면 這間의 消息을 大綱理解할수 잇슬것이다。作家에게 生活을 준다는것은 무엇보담도 必要한일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가 어느程度까지 任意로 自己가 固有하다고 잇는才能을 發揮식힐수잇는 모든機會를 生活과 한가지提供하미 더욱 必要한것을 우리는 이저서는아니된다。그리하야 모든種類의 社會生活이 그러하지만 亦是 文學社會도 보담豊富한「바라이에티ー」를 가질수록에 조흔것은 두말할것이업다。이런

作家가 잇는 까닭으로 저런作家의 作風이 빗나는것이며 저런作家의 思想이잇는까닭으로 이런作家의 性格은 注目된다。모든사람이 모든사람의 犧牲가되므로依하야 이곳에는 발서잇지안는 아모것이업는 一의 豊滿한狀態──여긔참으로 人間生活의 多彩한發展은 圖謀될수잇는것이아니냐? 말하자면 여긔서 나의空想은 爲先 이곳에 生活을잇게하고 그리하야 生活이업기때문에 다른곳으로 生活을求하야간 모든 文學人을 이곳에 回集하야 가난한 참으로 너무도 가난한 이文壇에 우리가가질수잇는 가장큰「바라이에티ー」을 出現식혀 이약이하라도할수 업섯든 모든文學的話題를 잇는 그대로 이약이하게하얏스면 여긔참으로 現文壇은 얼마되지아니하야참된歷史의 第一頁을 쓰기始作할것을 생각한다 이때에 우리인들 업는말은 할수업는것이지만 지금보담은 더좀잘말할수잇슬것이며 이때에비로소 사람은어떠作家의 力量에 對하야 또는朝鮮文壇의 力量에 對하야 眞實로 무엇인가를 말할수잇슬것이라 생각한다。

小品 닭을채인이야기 【一】
白石

디퍼렁갈장이 시생이네 닭을 말여죽이지안허서야할것이엇다。시생이네 닭이 지펑 령갈장네 차조비헤 나오지 안엇서야 더 조앗슬것이엇다。해도 령갈장에게나 닭이생기들에게나 운수 사나운날이엇다。시생이네 열배나 되는 닭이생기들이 령갈장네차조바를 제천지로돌앗고 뒤덥첫다。디퍼렁갈장 가튼 흉악한이는밭들은 내노코 주둥이 한아만의로라도 당해낸다는듯이 닭들은 을려성당으로 밀려나왓다。박기숙에서 은장두로 손톱을까그며 지중엽이든 디펑령감은 이꼴을 보고 령체산이도 너무업는 즘생이라고 닭의떼에게 눈을 빨면서『나아 칠집에 이런 벼락마자 뒈짐(죽음)닭이 생기들은 청보갓수나』하고 무리들을논것이다。

두머리의 시생이네닭이 디펑령감장네 차조밧고랑에서 마즈막 기지개를 틀엇다。

그날밤、운수사나운날밤 그러치안허야 조앗슬일이 모두 그려하엿다── 디펑령감장은 산평을 잡는 꿈을 꾸엇다。귀먹어리 할마구는 허리를 알노라고 밖그로 나와보지못햇다。개는 암컷을 떨어 집을 뷔이고 나갓고 썩어진 꿈새당은 술이 취한듯이 반쯤 나가누엇섯다。또한아 이날밤의 모작별은 어느 표독한 사나히의 그림자가 살기에 차서 디펑령감장네 담밋까지 가 멋는것을 보앗다。

그러면 또 밤바람이 나뭇잎지 모른다。너구리、살기、쪽재비들을 떨어 령감장네 닭구멍을 드나들은 그는 이날밤엔 즘생이난 사람의 양자을 서서와서 령감장네 닭장의 잔등을 톡톡 처보고간것이다。

시생이는 디펑령감장네 담미테서 살기가터 한번 색ー하고 우섯다。닭의장이 가까운 쪽으로 가서 닭을 념석해보앗다。부러 나즈막히 발자국소리를내고 귀를 기울엿다。닭안에서는 아모기척도 업섯다。그무서운터벙수캐의 눈이 번쩍 하지는안헛다。시삽이는 일이 되엿다고 마음을 노핫다──이놈우 가이새기래 나가긴 나갓구나ー。허리춤에 싸가지고온 찬밥덩이가 울울 밤이다。시생이는 돌에 마저죽은 닭의 녀시 도왓다고 생각하엿다。그는 담을 추어넘어서 뜰안에 날여섯다。

시생이는 닭의장 아레까지 범러벌렁 기여왓다。그것은 두수업시 한흡의 살기다 아니면 쪽재비다。아니게아니라 마음에서는 시생이를 쪽재비라고 하엿다 시생이는 싹ー하고 이번에는 정말 쪽재비가 되어서 샤특스러운 숨을 쉬엇다。살기의 숨소리와 우숨되는 소리를 디펑령감장네닭들이 모를까닭이업다。닭들은 말하는것 가러다

『와다、와다』

『정말 왓구나 왓서』하고

『깨라、깨라』이번에는 조끔큰소리로 또 말하엿다。푸득푸득 쌍쌍、꾸꾸、끄이끄이 닭들은번이나서 큰소리도못치고 야단을 한다。

이것을 살기라고 생각한것은 햇닭들이다。묵은닭들은 그러케 사날업는 살기가 아닌줄은 알고잇섯다。한잡을 자고깨여서 장의살창으로 서권한것을 넘어가는 모작별을 바라보고잇노라니 두발가진 물건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와다。──사람의 발소리로구나──하고 묵은닭이 곳 생각하엿다。그래서 묵은 숫닭이 몬저 아노라고 하엿는것이다 ─후、오늘밤엔 또 재사가 잇수나──。그러나 령감장은 닭을때가 거이되어서 장본을 열은 제사는 지나지 안헛다고 지나간 일을 이저버리지 안흔 흰둔닭이 혼자 속으로 생각을하엿다。

──수상한 일이다!──녀허서 누가 한숨을 지휘며끄르륵하고 말햇다。

게서 퍠밥으고 경우밤고 안사정 잘아는 흰은 노랑얌닭의 말이

──내엽새벼 령감데이레 당(장)에갈라구 그르 누만!──

그래도 밟든말이 백리안에서는 장날 아닌줄을 이 흰은 즘생이 모른는것이엇다。그럽드한 사정이다──령감은 날밝기를기달여 장으로 가는때이면 닭이 울어 귀신이 깨여나기전에 망숨들을 틀고 나와서 닭털의눈이 시우러게 장안을 휘둘러보는것이엇다。

그러나 이번이란 발소리는분명히 낫스나 어데 흰ー한털비치란 뵈이지안허다。

紙上瀑布展 (其一)
朝鮮第一의大勝瀑
湖岩

찌는듯한 伏炎中에서 헐떡기는人間들이 瀑布의 시원한 이야기만 들어도 凉味를 옹키는것가튼 感念이 생긴다 萬丈紅塵에싸인 京城안에도 三淸洞에만 가면 적음망정 龍瀑이란瀑布가 흐르고 잇는것을 볼것이며 紫霞門을

나서洗劍亭을 지내며 좀더가면 北漢山麓에 東嶺瀑이란 瀑布가 잇는것을 發見하리라 白玉에도 티가잇는셈으로 三角의 名山으로서 大瀑이업는것만은 적이缺點이라 아니할수업다 道峰에 會溪瀑이 잇고 逍遙山에 元曉瀑이 잇거니와 近畿山水의 名鄕으로지는 永平白雲山의 三釜淵瀑이 비록 오늘날은 他道에 빼앗겻스되 녯날부터 三淵金昌翕의 故居로해서 일홈더 有名하게된바 三淵이란雅號도 그實은 이三釜淵瀑에서 取한것이라한다 그러나 京畿道에 잇서서는 예나이제나

開城朴淵瀑을 덜흠만한 瀑布가 업는것은 事實이다 白頭山天池의 東北쪽 闥門瀑口로 흘러 松花江의源流를 일운飛龍瀑은 그長이 七百尺이되니 瀑布로는 第一크다하겟스나 現朝鮮의境界外에 잇슴으로 學論할바아니오 朝鮮안에잇는 第一큰瀑布로 말하면 雪岳山의 大勝瀑이다 世間에서 瀑布를 云謂할때 누구든지 먼저九龍瀑이나 朴淵瀑을 내세우지마는 이두瀑布보담도 大勝瀑이거이 갑절이나 더크다는것을 알어야 하겟다 만일大勝瀑이 九龍瀑과 朴淵瀑처럼

金剛山이나 開城近傍에 노엿든들 그이름이 적어도 全朝鮮的으로 膾炙하엿슬터인데 그만 奇險한 一隅에 태여나슴뿐더러 金剛山에게 눌리어지내는 雪岳山속에 끼여잇기 때문에 大勝瀑도 따라 [illegible]名을펌수 업것스니 山水의 顯晦도 역시 그사이에 무슨運數가 잇는가 그야雪岳에도 羅麗以來寺刹이 林立하엿슴으로 大勝瀑이 진작부터 僧侶사이에 알어젓슬것은 勿論이며 前에는 東峰金時習과 後에는 三淵金昌翕이 이를 사랑하야 모다雪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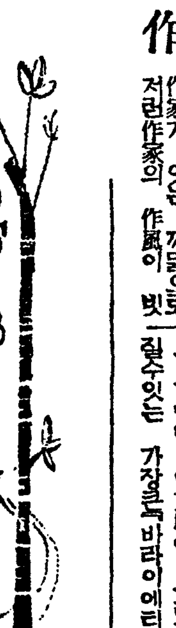
居住하게쭘 되엇고또明國人王維楨은 일즉 이大勝瀑을 가보고 中國에有名한 廬山瀑布보담 훨신 압선다고 激賞하엿스며 一步를 나가그는雪岳山記를 草하야 널리漢土에까지 紹介하엿슴을 우리가 볼때 도리어 本土에사는 朝鮮人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오히려 이絶勝을 무더두엇다는것이 一種羞恥임을 생각케된다 大勝瀑의 存在가 文獻에 나타난元始가 언제이지 알수업스되 四五五年前인 成宗庚子에 官撰한 東國輿地勝覽을 보면 江原道麟蹄縣條에 갈오되東五十里에 寒溪山(雪岳前面)이 잇스니 山上에 城이잇스며 川이 城中에서

流出하다가 곳瀑布가되어數百尺을내려펄새 바라보면 白虹이 한울에서 내려버든것갓타고하엿다 同輿地勝覽은 朝鮮最初의 統一地誌로서 大勝瀑이朝鮮地誌에 실린것도 아마 이것이 嚆矢가 되엿다 英祖때에된 八域誌와 純祖때에된 東國名山記에 모다大勝瀑의 이야기가 적혀잇스나 大勝이란名稱만은 웬셈인지 적혀잇지 아니하엿다 大勝의名稱이 明示되기는 純祖廿九年乙丑(一八二九)에 된權小游用正의雪岳內記에『大勝은雄而神』라고한것이 처음이다 그後 哲宗十二年辛酉(一八六一)에刻成한 古山子金正浩의

大東輿地圖에는大勝瀑의三字가 뚜렷이 나타낫슴을보겟다 이로부터高宗때 增補한文獻備考輿地考에도 그名稱이 明白히 적혀잇고 光武年間에 編纂한 章庵張志淵의 大韓地誌에도 그의名稱은 勿論이오 絶景까지 자못詳細히 說明되어잇섯다 그러나大勝瀑의 描寫는 古今을通하야 權小游의雪岳內記로서白眉를 삼는다 그概畧을 指摘하면 그는勝狀에 먼저雪岳의水가 金剛의水보담 奇勝하다고 말한後 그의代表로大勝瀑을 들어 極口歎賞하야갈오되『飛瀑이

쏴가세운듯하고白光이 한울을 꿰인것은 瀑布이다 이瀑布는 우나아래나 조금도 岩壁에 依하지 안코 虛空에서 떠러지는것이 千仞이나되며 日光이 映射할때 눈을 부시는 玲瓏한 彩虹의 무리(暈)가 絢爛을뒤어 마치 아른거리는 殺紋갓기도하며 山風이 吹動할때 허며 瀑布의 허리가 뚝 끈허지어 때아닌煙霧가 갑작이 자욱하게 天空을 가리우게되다 그리다가도 해가숨고 바람이 자기만하면 그景狀이 또다시變幻하야 晴天이건만 은은한 우뢰소리가山岳을 잡아흔들더라』이와가티 權小游 그는

詩와그림의 솜씨를아울러가진듯한 그一流筆법로서 이神瀑美의 眞髓를 붓잡아다가 紙上에 躍如케하엿지만 今日에도 大勝瀑은 依然히 神扉의쇠가잠긴채로 世人의입에 展開되지못하고 잇는것은 一大恨事이다。



民謠와女人
—黃海道巡歷記— (上)
城大 具滋均

귀여우리만치 조그마한 까물대며 突進하는 꼬맹이汽車에몸을실고 民謠採集을하려 또는나의사랑하든 그女人을 이저버리(忘却)기위하여 前後세번 旅行의 기쁨과 哀愁를 나는今年에 黃海道에서 가젓든것이다。

그女人이란 昨年여름에 民謠採集을 因緣으로하여 내故鄕松都에서 나와親하여젓고 그와의 사랑에서 이러난困境에 조들리여 그괴로움을 잇기위하야 나는지난봄에 두차례──처음에는 白川으로 다음에는

海州龍塘浦로 旅行을떠낫든것이엿다 그리고 이번에 또民謠採集次로 黃海道地方을 巡歷하고와다。이런關係로 黃海道하면民謠 그리고 그女人을 聯想하지안흘수업는依緊關係를 이루게되엇다。

旅行처럼 내게慰安을 주는것은 업고 旅行처럼 나의想華의 실마리를 풀러주는것은업다。이번에 나는 學生으로서는 마지막旅行이 될가싶흔 民謠採集旅行을하며 限업시 가(涯)업시空想과 追憶의 甘美에 醉하여섯다。沙里院서 水橋行輕便鐵道로 가라탄나의 눈압헤는 綠陰芳草우어진 여름의 大自然의넓은豚壁이 훈훈한흙냄새와 아울러 極히아름다운 潤澤한 農村風景을내눈압헤

展開식혀주엇다 그왼누리가 푸른 여름의 勝花時自然을 背景으로 悠悠히 김매는 벼헤끄러 鐵鋼色으로 빗나는 팔과 얼골을가진 白衣農夫와 풍물뜻는 閑暇로운 소한마리를 窓박그로 내여다보며 가장 朝鮮的情緖를 갓슬심은 한幅의 畵軸과도 가치나는 무엇이라 말할수업는 詩情에 짓눌리는 것이엿다。그러나 저ー기보히는 저黃海道 벌판의 穀食이익어서 黃金色물결을 일울가을이되면 닉것이 되여갈것이란것과 멀ー리보히는 一間茅屋속의 참으로 可憐한 그들農民의 現實生活에 想到할때 이러한 詩情을 늣기며 民衆感情의 가장素朴한 表現이라고 民謠를 그들의 입서 차저내려는 그리고 그것을가장 朝鮮文學의 重要한 遺産의 一部로

尊重히녀기고 硏究하려는 우리들의 有限한 그들의 땀내나는 生活에 比較하여 부끄럽게 늣겨지며 나는 나스스로의 철업슴과 自護을자각는듯기지 안흘수업는것이엿다。

그러나 다음瞬間 그들속에 숨어잇는 淳朴하고 原始的인 口傳民謠硏究의 重要性을 切感하는 矛盾을 敢行하고 잇는나엿다。그들에게도 生活의 慰安이 必要할것이고 암만어려운(貧寒) 그들이로되 노래를 불러 勞働의 疲勞를 덜랴는 自然發生的인 民謠가 업스라는法은 업슬것이다。李朝五百年의 政治는平民階級의 抑壓에 가장 만흔힘을 썻다할지라도 그들의 漲溢된 感情까지를 죽이지는못하엿슬것이니까。

이번 나는

信川邑 信川郡蘆月面安岳邑 安岳郡龍順面 信川溫泉 載寧 沙里院 新幕等地로 돌아단인結果 六七十首의 民謠를 엇기는어덧다。그리고黃海道란곳이 만흔 民謠를 간직하고 잇슴을 알엇다。그러나殆半이 모도 戀愛를 表現한것뿐 별다른 傾向을띈것──일을테면 政治에對한 不平을 노래한것이라든지 또는 生活에對한 大衆의 그무슨切實한 欲求라든지、感恩報謝를 말한것이라든지는별로 차저보지를 못하엿다。勿論 내가 近來 多忙한關係로 短時日에 단여와서 廣布되여잇는民謠도 채엇지를 못하엿는지도몰으거니와 그래도 그러한

民謠가 만흘진댄 十日間이나 純全히 民謠採集만을 위하야 돌아다인내

腦漿의多寡는—
頭腦明晰과反比例?
『스파포ー드·아커리ー』博士研究發表

【『와싱톤』發聯合郵信】最近에열닌米國精神病學協會年次大會의席上에서『루이스빌』大學의『스파포ー드、아커리ー』博士는 腦髓를 減해서 도리혀怜悧해진다는 興味잇는 手術의例를 報告해서 滿場의喝釆를 어덧다고 한다。

手術은 二年前同大學의『그렌스퍼링』敎授의 손으로 行해진것인데 患者는『오ー스트리아』出生의 婦人。理性과 知力、推理力을 司掌한다고하는 右前額部의 腦漿全部、左前額部의 腦漿의 大部分을 除去해버렷다。手術後同婦人은 智力이 衰하지안흘뿐만 아니라 性格的으로도一變해서 一年間은 極히快活하게 맛치 어린아해가됏스나 二年째되여서는 依然히 記憶力이 놀날만치 조케되고 疲勞感이 업스며 勞働도잘하고 決斷力도增大해졋다고한다。

이原因은 여러가지로 說明될수잇스나 第一에頭腦에는 不必要한部分이잇다는것이다 이것은 動物에잇서서는 벌서 實證되엿는것이고 둘재로남어잇는 前額部腦漿의 小部分은 完全한部分그대로잇슬때보다 훨신더以上으로優秀한機能을 發揮할수잇다는것이다

夏期 歸鄉文藝 投稿歡迎
規定

1、隨筆、日記、紀行、實話
2、專門學校學生程度以上
3、四百字原稿紙十枚以內
4、寫眞添付도無妨

但原稿取捨는本社自由

朝鮮日報社學藝部

新刊紹介

▲四海公論 第四號 京城府竹添町一丁目 四海公論社發行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十錢送料二錢

▲新興佛敎新聞 八月號 東京市豊島區雜司ケ谷町一의六〇 佛旗社發行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五錢(和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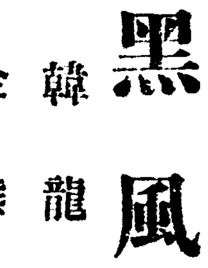
▲朝鮮地方行政 八月號 京畿道版 京城府太平通二丁目四四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發行 振替京城八一五番 定價五十錢(和文)

▲산新聞(生きた新聞)八月號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二의四 三一書房 振替東京二八八七五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和文)

▲國民法律 八月號 東京市芝區二本榎一의四七 國民法律社發行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拾五錢(和文)

▲萬人必讀 傳道文 李賢洙著 咸南新北靑望溪敎會發行 定價十錢

▲古筠 第三號 東京市豊島區池袋一〇三四 古筠會發行 振替東京七五二二九番 定價二十錢(和文)



黑風 【99】
韓龍雲 作 / 金熊超 畫

정탐(偵探) 9

『내가 웨 남 사서를 때오의 본단 말이오』

『편지 볼 임자가 때어보라는대 무슨관계가 잇서요 내게 오는 편지는 선생님에게 보이지못할 편지는 하나도 업습니다 그리고 왕한의 편지니만치 자미잇는말이 잇슬뜻합니다 어서 때어보서요 나의손이 그대지 깨끗한것은아니지만 왕한이가리 비루한사람의 편지를 내손으로 탐탁하게 때어보기는 시려요』

하는 순옥은 한쪽눈에는 성원에게대한 애교가 흐르고 한쪽눈에는 왕한에게 대한조소가 잇는듯하얏다

성원은 왕한의 편지가 무엇이 그리 더러울 것이 잇느냐고 말을 하랴다가 다시 순옥의 감정을 상할까 두려워서 말머리를 돌렷다

『내손은 순옥씨의 손만 못하단 말이오 순옥씨의 손으로 떼어보기 시른 편지를 나보고 떼어보라고 하게…… 왕한이가 순옥씨를 사랑한다니까 그것이 무론 연애편지겟구려 남의 연애편지를 내가 웨 떼어본단 말이오 나는 실소 내가 간뒤에 혼자안저서 떼어보시오』

하고 롱담처럼 말놓하고 순옥에게 사랑스런 눈을 흘기엇다

『연애편지 일스록 당신이 떼어 보아야지오 당신이 나의 애인이 아니오 애인에게 온 연애편지를 아니 떼어보면무슨편지를 떼어본단말이오 내가 만일 당신에게 연애편지가 온줄을 안다면 당신이떼어보라기전에 강제로 빼앗어서라도 두눈에 쌍불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떼어보겟서요 남의 사서를 떼어 보앗다고 벌금을 물더라도……그런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열(熱)이 업나버요 그런 편지를 떼어보라고도 아니하게……당신은 고래호신이가버요、아서요 냉혈동물?』

성원은 사랑의 말을 조금더 주고밧고 한뒤에 편지를 떼어보라다가 순옥의말의 꼿마듸에 기가 눌렷다

『편지임자의 명령이니 떼어보까』

하는 성원은 잘 떼러지지안는 피봉을 손톱으로 긁거떼면서

『─ 연애편지라 그려 한가 지하도게도 부처다 이속에 무슨 말이 드럿노』

하고 떼다못하야 봉투의 한쪽을 찢고서 편지를 내어서소리업시 본다

『느가 혼저만 보시랫서요 소리를 내서 크게보서요 나도 좀 듯게 혼저만 보면 보나마나 남의 자정을 저러케몰나주는이가 연애를 엇더케하시오』

하는 순옥은 고개를 숙인채로 눈을 치떠서 성원의 얼골을 보더니 말을 게속하야

『나는 누어서 드를테야요 크게좀 보서요』

하고 성원의 무릅을 베이고 드러눕는다

성원은 무릅을 펴서 적당하게 빼어주엇다

『가만이 잇수 나는 서투른글인대 편지글씨가 하도 야단스러워서 대번에 볼수가 업소 나혼자 초벌을 보고 두번째 고성대독 하리다』

『에그 별중탈이 다 만소 편지하나 보아 주기에 그러케 자세가 만알내서야 사람이 어듸 견듸겟소 참 아니꼬아 못보겟소 이리 내시오 내가 볼터이니』

하고 한손으로 성원의 다리를 가벼웁게 꾀집으면서 한손으로 편지를 빼앗으라 한다

『그럼 크게 읽을테니 드르시오』

하는 성원은 손을 드러서 편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어 편지를 읽는다

『사랑하는 순옥씨! 전일에 옥가튼 발꿈치로 거친 처소를 차저 주신것은 무슨 말로 감사한뜻을 표할는지 모르겟습니다 내가 순옥씨를 뵈옵게 된것은 이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본 성원은

『야 이것참 대단하구나 편지허두부터 찡장한대 순옥씨가 이러케 인끼녀성(人氣女性)이던가』

하고 계속하야 편지를 본다

SA-18

サッポロビール
(삿뽀로삐ー루)

アサヒビール
(아사히삐ー루)

朝鮮麥酒株式會社

祝朝鮮日報社新築落成記念

平壤(其一)

平壤고무同業組合

久田고무工業所
金剛고무工業社
內德고무工業所
世大고무工業社
第一고무工業社
大同고무工業所
東洋고무工業社
世昌고무工業社
鮮滿고무工業社
正昌고무工業所
平安고무工業社
平元고무工業所

平壤洋襪工業同業組合

大同織造商會
大星社織造所
東亞洋襪工場
朝鮮洋襪工場
三共洋襪工場
世昌洋襪工場
月星洋襪工廠
海東社洋襪工場

平安精米所洋襪部
平安洋襪工場
三信洋襪工場
辰興洋襪工場
泰星洋襪工場
箕城洋襪工場
三養織造商會
大山洋襪工場

平壤鍾路
平安百貨店
代表電話二一〇〇番
振替京城二一〇〇二番

平壤水曜會

平壤
關西體育會

平壤府新陽里
崇實專門學校
崇實學校

平壤府慶上里
甲種 崇仁商業學校

平壤府景昌里
光成高等普通學校
電話九一八番

平壤
財團法人 崇德普通學校

平南金融組合會

平壤
金建亨

平壤
箕城醫師會

平壤府水玉里
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

平壤府上水口里
崇義女學校
電話一三五八番

平壤府外下里
財團法人 彰德普通學校

平壤
光成普通學校
電話五九一番

平壤
財團法人 崇賢女學校
電話一七八五番

平壤府大察里
正進女子普通學校
電話一三〇九番

平壤府館後里
天主教會
가톨닉研究社

平壤
財團法人 鼎義幼稚園

平壤府[illegible]貫里
光明書館
電話一〇四八番

平壤府廳

平壤綢緞布木商組合

財團法人
白善行紀念館
電話一七二〇番

[illegible]
濟衆醫院
院長 金秉瑞
電話九二一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中央紙業社
金健永

平壤鍾路
元東商會
玉流
電話一〇六七番

平壤府壽町一二
各種自動車用品商
五輪商會
電話一五四〇 一三五〇番

平壤府大察里
基督聯合病院
電話一八一九 一七二二番

平壤府大察里
基督聯合病院
副院長 姜海龍

平壤府將別里二六五
朴斑烈

平壤府竹典里
眼科專門
大明醫院
電話一三八五番

平壤府鷄里(崇仁殿前)
內科專門
學堂醫院
醫學士 劉鎭
電話一八〇九番

平壤府西門通
大洋寫眞館
電話一三五六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天元堂藥房
電話二〇七番

平壤府大和町
視力檢定 眼鏡調製
正確堂眼鏡店
電話一三九二番

平壤鍾路
和洋金物 朝鮮鐵物
安濟吉鐵物店
電話一七八二番

平壤府鍾路
第一고무代理店
安進玉고무商會
電話一九〇六番
振替京城七一八二番

平壤府西門外
新光洗濯所
電話四九五番

平壤府新倉里
果物問屋
普信公司
電話一四二九番

平壤(箕林公園內)
朝鮮料理 スキヤキ
乙松亭
主 金在坤
電話一九七九番

平壤
孫致民

平壤府館後里
辯護士 韓根祖

平壤府箕林里
朝鮮メリヤス工場
電話二一七二番
振替京城二二九四一番

平壤府南門通
帽子及原料商
義昌商會
電話一六一七番
振替京城一六一五番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元祖
長春館
電話 八八五番 一九一〇番

平壤府鷄里
三共洋襪工場
電話四三七番

平壤府水玉里
東日旅館

土地價가말하는 大邱府의發展相

府內府外가모다數年前보다 地價는十餘割의暴騰

【大邱】남조선의 웅도 대구는 상업、공업、상업등의 비약적발전과 비행장의 긔지문제 종방공장유치운동등에 자극되여 대구부내외의 토지가는 전정부지로 폭등하고잇다 더욱히 대구교외의 동남방면은 도립병원설립(道立病院設立)에따라 사오년전에 비교하면 지가는 삼사배의 폭등을비롯하야 사호선도로와 련대(聯隊)근방에는 대정륙칠년전 도로가 개통되기전과 비교하야 현재에와서는 매평에 팔원내지 십원이란 엄청난 차이로 약십할내지 십오할의폭등이되엿음이고 또 부내에잇서서도 원정통(元町通)을 중심으로한 번화한 지대는 현재 매평에 삼백원 정도로 되여 약오할의폭등을 보이고잇다 한다

宗教大講演會 十五日江華에서

【江華】강화전등사(傳燈寺)의주최와 본보강화지국 후원하에 오는 십오일 오후일곱시부터 강화공보교 대강당에서 경성불교전문학교교수 김태흡(金泰洽) 문학사박윤진(文學士朴允進)량씨를 초빙하야 종교대강연회를 개최키로 되엿스며 십륙일에는 강화온수 공보교강당에서 개최할터이라한다

十二分의收穫남기고 婦人夜學會閉講 馬氏外有志努力으로

【永登浦】시외 로량진(鷺梁津)로청학원(勞靑學院)원장 마종연(馬鍾璉)외 강사제씨는 하기휴가를 리용하야 비록 십여일밧게 되지안는 극히 짜른 동안이나마 가정부인의 문맹을 열어볼려는 열성으로 지난칠월이십일일부터 동학원에서 림시 부인한글 야학회를 개최하엿든바 의외에 지원자가 삼십륙명에 달하야 그중에는 사십삼세나된 부인네도 잇섯는대 불과 십여일동안이란 짜른기간에 한글을 알게된 부인네가 이십명에 달하엿다하며 지난 칠일 오후팔시에 성대한 폐강식을 거행하엿는데 동강습원들은 금후 영구적으로 강습회를 개최하기를 갈망한다고한다

公州聖德學院● 維持基金募集

【公州】루보=충남공주군반포면 성덕리(公州郡反浦面聖德里)에잇는 성덕학원에대한 유지긔금은 각방유지로부터 속속답지하는바 그들의 방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公州郡反浦面聖德里南昇鉉審齋機一座 ▲南大鉉大珠等一個 ▲林炳勳金五圓 ▲同郡儀堂面龍岷里 李建培金十五圓 ▲燕岐郡南面高亭里全應和金十五圓 ▲同林忠元金五圓 ▲同兪龍安金五圓 ▲林致召金五圓 ▲林憲貞金五圓 ▲公州郡長岐面松院里閔鍵植金三圓 ▲同柳錫在金三圓 ▲同南相淵金三圓

以上

豊川支局主催의 椒島産業視察團

—一路無事히歸還—

【豊川】긔보=본보풍천지국주최 초도시찰단 일행은 예정과가티 오일오전구시반 지국장 로진세씨 인솔로 진강포출발 초도어업조합(椒島漁業組合)에도착하여 동조합서긔 최성현 하정오(崔性鉉河淨五)양씨의 안내로 공동어장에대한 상황의설명을 듯고 조합리사 량천승차(梁千勝次)씨의 초대만찬회에 일행이참석하엿다가 그곳을떠나 해안경개를구경하며 서도등대(西島燈臺)에가서 등대직원들의 안내로등대시설에대한 설명과 긔적의실지 실험을시찰한후 서쪽 해안을돌아 배꼴(梨洞)에 도착하여 초도개척농원주안상호(椒島開拓農園主安相鎬)씨의 안내로 그곳서 하로밤을지내고 다음날농장원을 시찰한후동쪽해안을 감돌아 소사포(蘇沙浦)를 시찰한후 일로 진강포(津江浦)에 도라와 일행은 조선일보(朝鮮日報) 만세(萬歲)로서 산해하엿다

小作爭議原因은 大概地主의橫暴

作權無理剝奪等等

【扶安】금년일월부터 륙월까지의부안지방 소작쟁의는 군소작위원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건수는 구십사건인데 쟁의의원인은 무리하게 소작권을 이동하려는등 대개가 지주의 횡포에 긔인함이라는바 소작위원회의조정으로 대부분은 소작인측에 유리하게 해결되엿다한다

密陽서도一人

【密陽】지난사일 오후네시경에 밀양군수산(密陽郡守山)중촌조(中村組)하천공사장에서 일하든 인부한명이 락뢰로서 즉사하엿는데 죽은사람은 하남면대평(下南面大坪)에 사는 김인백(金仁伯)(三□)의 장남 쾌특(快特)(七) 으로 그날 전긔 공사장에서 흙일고단이는 긔관차에 벗인드를 보고잇섯는데 그때마즘 소나비에 락뢰되여 그와가티 현장에서 즉사하엿다고한다

船頭契의理事 契金多額橫領

【釜山】부산본정에 잇는 제주도해녀조합선두계(濟州島海女組合船頭契)에서는리사 문태빈(文泰彬)씨가 계금 이천배여원을 횡령소비한 부정사건이 잇서동계유지 리긔성(李基性)씨가 일반계원을 대표하야 지난칠월삼십일에 부산경찰서에 전긔문태빈을 배임죄로 고소를하고이에 팔월오일오전십일시부터 부산중앙어시장(中央魚市場)회의실에서 계원림시총회를 개최하고 계무의혁신과 계금정리와 민부정리사처치 문제등을 토의한결과 좌긔 임원에게 임원하기로되엿다한다그런데 동계의부정사건의 자세한내용를드건대 동계는대정십사년사월경에제주도해녀조합원 선두일백오십이명이 상호부조와 동조합원의 유일의 식량품인 좁쌀(粟)공동구입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엿고 계원일인에 금오원식을 내여서 긔금으로 하얏고또 소화이년에는 특별계원으로 해녀 일천사백사십이인을 매인에게 회비 이원오십전식밧고 입계식히 상당히 활동하야 오던바 소화팔년이래 리사 문태빈이가 다액의계금을 횡령소비한 후로 동계는 유명무실로 되엿다한다 그래서 동계유지 제씨가선후책을 강구하다가 드듸어 그화가려 고소를 제긔하얏다한다 그리고 동계문부는 경찰서에서 압수하야다가 조사중이며 부정리사 문태빈은 경상북도구룡포(九龍浦)방면에 장사하려간 모양으로 방금 수배중이라한다

新任役員 組長金泰鎬 副組長宋成根 理事□□□ 監査夫以松 宋華辰 夫甲生 □□□□ 金河鎬 金成律 松澗

待望의千金甘雨 一時는交通杜絶

【四街里】전남 사가리일대에는 금춘이래 강우의부족으로 이앙성적이 양호할박게 되지못하엿스며 그나마도 계속되는 한발에 전부고사의 상태에 빠젓섯고 전곡도 역시전멸상태에빠저 인심이극도로 흉흉하여 관민일치로 비오기를 고대하고잇든차 륙일오후사시경부터 약삼십분가량의 호우로 일시는교통까지 끈어지고 약간의 가옥의 침수도 잇섯스며 농작물에도 막대한 리해가 밋첫다한다

安城體育會 發會式擧行

【安城】긔보=안성체육협회조직운동은 그간창립위원제씨가 부단히로력하여오든바 지난팔일오전십일시에 마성보통학교에서 발회식을 거행하얏는데 먼저본보안성지국장 김노록(金魯獸)씨의 취지설명과 경과보고가 잇고 즉시의사를 진행하야 회측통과 임원선거를마치고 발회식그뒤으로 서내초등학교 아동 □□□□□가 잇섯는데 一等安城公普校 二等安城□□□校 三等安城小學校 등이엿스며 당일 선거된 임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旗智作之助 副會長=朴寅秉 理事=朴周秉、朴容寅、金合榮、鄭殷燮、尹喆周、方仁炯、東田隆次郞、曹義赫、朴衡秉、金魯獸、石毋田淳、市山直衛、稻葉山根滿夫、李南秀

幹事 總務部長=朴容寅、久保慶市、李鍾振、朴容復、朴容觀義人、安教翰 庶務部長=金魯獸、陳慶得、金順宗 經理部長曹義赫 李用毅、李康禧 競技部長=朴衡秉、吳登伊、李桓學、尹明熙、栗島研介、李海泳、李南秀、朴容紀、金昌燁、吉田茂

全文川蹴球戰 本社支局後援

【川內里】함남 문천군 천내리에서는 예년과가티 문천류학생간친회주최와 조선 동아 중앙삼지국의 후원으로 전문천축구대회(蹴球)를 개최한다는데 시일과 장소는 다음과 갓다고한다

時日 八月十一日

場所 川內尋常小學校運動場

地方人事

▲李鍾勳氏(慶北道地方森林主事)金泉郡新任人事次本報金泉支局來訪

▲小谷良夫氏(慶北道產業技手)同上

▲吉江俊秀氏(前瑞山警察署長)今般鳥致院警察署長 榮轉人事次本社瑞山支局來訪

▲仲吉寬位氏(前蔚山稅務署長)居昌稅任人事次蔚山支局來訪

▲李鍾冕氏(前蔚山稅務署庶務課長)義城轉任同上

▲文武啟氏(蔚山稅務署長)新任人事次 同上

▲實藤資男氏(蔚山郡產業技手)東萊轉任 同上

▲吉良俊美氏(蔚山郡森林主事)居昌郡轉任 同上

通行婦人을襲擊 핸드빽專門强盜

畢竟二名一時就縛

【釜山】지난 사월경 부터 부산부대신정을 중심으로 각처에 신출귀몰 하게 낫타나서 부녀자의 통행을 옹탈하야 핸드빽을 강탈한사건이 빈빈이 발생하야 일반 부녀자의 공포의적이되엿고 경찰당국도 범인체포에 불면불휴 협안활동 하던바 지난륙일오후십일시경 대신정에서 진범인을 체포 하얏다는바 부산경찰서 복정형사부장(福井刑事部長)은 대신정 산일번지에 사는 박호갑(朴浩甲)(二三)이가 거동불심한점이 잇슴을발견하고지난륙일오후십일시경에 형사오인을 다리고 동바의 집을 습격하엿던바 이것을알안 박은 부근 숨어잇는것을 대격투를한 후 체포하야 엄중취조한결과 범죄를 자백하얏다 그리고공범자로 본적을 경남창녕군성산면 대견리(昌寧郡城山面大見里)에두고 주소불정한 박긔준(朴基俊)(二□)도 그부근에서 체포하얏다한다 주범박호갑은 변태성욕자로 공범 박긔준과 공모하고 부내대신정 대청정 토성정 초량정 등지에서 밤느게 통행하는 부녀자를 전문으로 강절도를 하엿다는것으로 그간범행건수는 십팔건에 달한다고한다

그女子의一生 (179)

방랑편

春園 作　夕影 畵

「그래서?」

하고 금봉도 이 룸의엣 방문객을 만날적 불안도、부끄러움도 다 일소해버리고 가벼운、유쾌한 긔분으로 옥남의 말을 재촉한다。정희도 옥남의 말이 재미잇는드시 빙그레하고 돗고 안젓다。

「그래 내가 옵바는 어듸서그런 나쁜 게집들만 사고이고다니섯소? 왜 여자가 그러탄 말이오? 어듸서 케케 묵은 남존녀비의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시오? 하고 항의를 햇지。그랫더니 이것바요。옵바 말이 무에라는고 하니、그럼 어듸그러아니한 여자를 좀 대보라고 너 아는 여자에 돈과 사내의 유혹에 줄줄 끌려다니지아니하는 사람이 몃치나 되느냐고。서정희 하나밧게 제 정신으로 사는 여자가 어듸 잇느냐고。금봉이도 장래성이 잇다고 밋엇더니 저 꼴이 되지안핫느냐고。그리고 숙희 꼴은 무엇이고 네 꼴은 무엇이냐고、너는 왜?듯십호냐고、막 이러케 나온단말야。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그러키도 하거든。그러니 할 말이 잇나?그래서。그것도 사내놈이 악해서 그러치오!하고 악을 쓰고말앗지。숙희도 조병걸이 때문이아니오? 옵빠는 게집애들을 얼마나 버려주엇소? 막 몰아셋지。그러니깐 옵바가 그럼 계집년들이 잡아잡수우 하고 덤비는것을 가만 두어。가만 두기로 쓰게집 되것기에、글세 이런단말야。그런줄 몰랏더니 옵바가 아주 대단한 미소지니스트란말야。여자는 도모지 사람으로 안 알아요」

「내가 넘어 오래 말을하엿서」

하고 말을 끈흐며、

「금봉이 아직도 신경이 약할텐데、안정해야될걸」

하고 금봉의 이마를 한번 만저보고는 일어선다。금봉의 이마에는 촉촉이 땀이 낫다。금봉이는 장래를 밋엇더니 그꼴이라는 말이 대단히 금봉을 괴롭게 한것이엇다。

「정희 언니도 숙희 언니 보러오셧소?」

하고 금봉은 정희를 바라본다。

「아니。나는 다른이 위문이야」

하고 정희도 일어선다。

「다른이 누구?」

하고 금봉은 두 사람을 잠시라도 더 못볼라는드시 침대에서 일어나 안즈며、뭇는다。

「우리 선생님인데、저 불란서 수녀야。지아느라는 한 오십된 인데 맹장염으로 입원한지가 한사오일 되엇서요。」

수녀라는 말에 금봉은 자긔더러 수녀가 되라던 인현을 생각하엿다。

「수녀면 아직도 처녀겟네?」

「그럼。수녀는 다 처녀지。」

금봉은 그 오십이 되도록 처녀로 수도한다는 지아느수녀를 한번 만나보고 십흔 생각이 낫스나 더 말하지는 아니 하고 옥남을 향하야、

「숙희언니는 그래 대단치는 안소?」

하고 말끗을 돌린다。

「그럼。인제는 죽지는 안는대。아직도 출혈은 잇다금 되지마는。그 만흔 욕설과 고생은 누구를 주고 죽어?」

하고 옥남은 픽 웃는다。

「그래 조병걸씨는 와 보아요?」

「그럼 아까도 와 안젓던데。그 군이 오길래 내가 비켯는데。」

「어떠켤 작정인고?」

하고 금봉이가 미간을 찌푸린다。

「무얼 어떠케해?」

하고 옥남은 경멸하는드시、

「인제 숙희가 추서는 또 아이를 배고、그리고는 또 떼고 그럴테지。숙희도 김애도가 다되엇서요。애도가 아이를 다섯을 떼지안햇나봐。○○통에 잇는겝。숙희도 그 녀석의 의사가 애떼기전문하는 의사가 다려서 경을 첫치마는」

「인제는 그노릇 좀 고만두지 무어 그리 조흔게라고 애만나 하。」

하고 금봉은 정희를 보며、

「정희언니。나가튼건 시집도가고 애도 나코 햇스니깐 수녀도 못되지?」

「처녀아니고는 수녀가 못된다면서?」

하고 옥남이가 정희를 바라본다。

정희는 빙그레 웃을뿐이오 대답이업다

밧게서 뚱뚱거리는 발 자욱소리가 나더니 간호부가 문을 와락 열고 드려오면서、

「과장선생 회진이야요。」

하고 옥남과 정희를 흘려본다。

平壤(其二)

平壤府新里 天主教教會 梁基涉

平壤府寶店里 盧鎭高

平安南道立 平壤醫院

平壤府鍾路 콜럼비아專門店 常信樂器店 主 金永信 電話一七三二番 振替京城一四九五三番

平壤府巡營里 平安고무工業社

平壤府橋口町 正昌고무工業所 電話九四七番

平壤府仁興里(西平壤驛前) 第一고무工業社 電話六四二番 振替口座京城六八九四番 電略(タイ一)又せ(데일)

平壤府倉田里 第一クタシ 電話三一七九番

平壤府南門通 合資會社 ㊀ 平壤商工運輸組 電話一五三四 一七七七番

平壤府融町四〇 梁利鐸 電話二〇〇二番

平壤府南門通 鐵鋼貿易 永燮鐵材商會 電話二一〇八番

平壤府南門通 共信皮革店 電話一一九〇番 振替京城七六六九番

平壤府□下里 百花染色工場 電話一三二三番

西平壤驛前 百花第二染色工場 附屬洋襪部 電話一四七〇番

平壤府上水口里 朝鮮寫眞工藝社 電話一九九一番

平壤府南門通 和洋紙物 韓一紙物商會 主 康基鎬 電話一七九四番

平壤府東大院里 各種皮革製造元 平安製革社 柳鵬烈 電話一三三二番 振替京城一九四三番

ゴム靴品 平野商會平壤出張所 安宗鉉 平壤府四爵町五一番 電話四七番 本店 神戶市林田區東尻池町字片吹八ノ二

平壤府南門通 金物商 近藤支店 主 鄭文永 電話八三九番

平壤府爵町九六 スミス自動車商會 電話一二四六 七五五番

平壤府館後里 昌皮革店 電話一二五九番

平壤府鍾路 金銀分析所 電話一八三九番

平壤府館後里 牛皮紙物商 李觀濟 電話一四二二番

平壤府鍾路 全佐庸商店 電話八〇六番

平壤 箕城洋服商組合

平壤府箕林里二〇二番地 農民고무工場 長途電話五三二 振替京城六二七九七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栗田商店 電話一九六一番

唐草乾材、洋藥各種、賣藥製劑九十餘種 四代世傳 韓氏膏藥 韓氏靈神丸 中城韓藥局本舖 平壤府巷町九十四番地(元、中城) 電話一四七八番 振替京城一〇〇八七番

平壤府旭町十二番地 平安自動車商會 金徠銖

平壤府旭町十番地 平安タクシー 韋利億

平壤府鏡齋里 朝鮮料理 東一館 電話一五五八 一七八番

平壤府慶上里 朝鮮料理スキヤキ 長慶館 電話八三二番

平壤府紋質里一五 朝鮮料理元祖 又春館(新築中臨時場所는慶上里) 電話一〇五九番

支那料理 一品香 電話一七五三番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元祖 大成館 電話一一九七番

平壤 株式會社 箕城券番

世界的輸入統制와 日本景氣의 打診
慢性不況繼續論有力

貿易關係로본 日本景氣前途에 對하야 如左한 悲觀論이잇서 好景氣라는것은 바랄수업고 日前으로 米國中間景氣에 依하야 重工業株의 昻騰은 到來할지언정 大局的으로 資本主義의 前途를 悲觀하는 사람이 잇다

×

好景氣의 基本條件인 通商自由의 回復을 바랄수업고 大勢는 通商自由를 破壞하고 價格의高低는 어쩌던지 外國商品은 될수잇는대로 사지안케다는 世界情勢下에잇서 日本의 貿易前途는 絶對로 樂觀키어려울 다.

×

지금까지는 低廉한商品으로 貿易하얏지만 各國의 輸入統制가 嚴重해저서 如何히 低廉한商品이라도 外國으로부터는 사지안는 傾向이 濃厚한것이 事實이다。지금까지는 雜貨이던지 纖維品이던지 低廉한때문에 日本商品이 잘팔니어서 輸出貿易의 增大를 中心으로 하고 昭和七年부터 好景氣를 示現한터이나 지금은 正히 關稅、低勞賃、低金利의 成果가 一巡되엿다가 各國은 去益 輸入統制로 進行中이니 어찌 日本輸出貿易의 好調가 繼續될것이며 景氣가 조케 될수잇겟는가? 再禁止後의 自由主義經濟情勢가 자미업섯슴에 鑑하야 歐洲金輸出國도 再禁止대신에 輸入統制의强化에 出하는中이것을보면 日本의景氣도 大勢的으로 下向狀態임을 짐작할수잇슬것이다。

×

北滿과 北中의 購買力을背景으로서 日本의輸出이 增進할것이라는 말이잇스나 이것을 何時까지든지나 當分은 도리어 北滿과 北中의 事情으로보아 資本이 固定化되고 金融의 重荷를 招來하야 日本의 景氣는 壓迫될것갓고 蘇聯과 北中으로부터 日本의 重工業品에 對하야 註文이 잇는傾向이잇스나 그分量은 적을것으로서 日本 事業의 七割은 纖維工業임으로 이纖維工業의伸力이 阻止되기 시작한터이니 日本事業界는 不振狀態에 陷치안흘수업는터이다。

×

米國은 購買力回復工作實施로 大統領의獨裁政策을 中心으로하야 秋期에至하야 財界가與할 될것이 明白하며 그때로에 日本도 生絲와綿花는 市價가騰貴되고 實行도 조하질것가트나 綿絲와綿布는 市價騰貴로 輸出이困難할 念慮가업지안타。그러나 生絲高와 綿絲高가 中心이되어 人絹低도 阻止되고 纖維品의 先高豫想으로 一時的으로는 投機買가잇서 輸出이 好調를示할지모름으로 一時的으로는 金景氣好轉의빗이 잇슬것도가지만 大勢的으로는 그러것은 問題도 아닐것이다。말하자면 米國景氣의 與奮狀態가 繼續될것、金暴騰 崩壞가 一時中止모양인것 等으로 目前的으로 좀조아질것도 갓지만 大勢的으로는 各國의 輸入統制化로 外國에商品이 팔니기 어려움으로 生産力 過大의 壓迫으로 日本의 景氣는 下向 情勢를 取케될것으로보인다。

×

外國에 팔니지안흐면 國內에서 消費하면 어떠하냐고 말할지모르나 資本主義는 消費主義이오 生産力本位로서 消費力을 抑制함으로 資本主義下에 잇서는 國內消費는 至極히 困難하다。然하야 外國으로 商品을 파는以外에는 生産力消化를 바랄수업는터인데 이것이 漸次어려워지니 걱정이나。

×

國家가 財政인풀레로 消費力을 좀增大식히면 忽然生産力이 더增大해저서 도리어 生産力이 過大케되는때문에 「인푸레」로써보드래도 도리어 逆으로 「띄푸레」를 招來케될것이니 이로써보드래도 國內消費의 增加는 바랄수업는것으로 結論은 輸出貿易悲觀으로 因하야 景氣는 慢性不況이 繼續될것이라고 妥當할것이라 觀論이 有力히 主唱되는 모양이다。

製絲家의 最後策
養蠶小作까지 企圖
特約組合設置코 繭一手購入
農村經濟엔 致命傷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原料繭不足을 理由로 旣報와가티 一割操短을 斷行하얏는데 現行共販方法에 依하면 그해의 産繭額이 如何히 만트래도 生産者가 팔지안코 自家用에 供하고 自由市場에 搬出할時는 製絲家가 原料繭을 購入할수업스니가 이러케 못하도록 養蠶特約組合을 設置하자는 말이 잇다한다。一種의 契約栽培로서 製絲家가 土地를 購入하야 桑田小作養蠶小作을 하게하고 그代價으로 生産繭은 生繭대로 全部 一手購入하는 方法이라한다。萬一 이것이 加速度로 實現된다면 朝鮮農村에는 致命的打擊을 밧게되리다고 注目된다한다

滿洲治外法權撤廢와 朝銀對滿金融策
積極派、支店增設과機能擴大
消極派、北中進出、主張

滿洲國의 治外法權撤廢에 伴하야 日本의 對滿金融政策도 이에 順應할 方策을 取할 與否의 重大局面에 直面하얏는바 本問題에 關한 朝銀首腦部와 幹部行員의 意見은 積極、消極의 兩派로 分하야 아즉 決定되지 안엇다한다 即 積極派는 滿洲國治安의 安定과 産業의 發展에 伴하야 朝銀의 機能을 更히 擴大하고 吉林、鞍山等 問題이던 支店設置를 急히 實現하야 積極的 金融政策을 取할것이라는데 對하야 消極派는 滿洲國의 金融政策은 中央銀行에 一任하고 哈爾濱、新京、奉天及關東州等의 主要地以外의 支店出張所는 全面的으로 撤退하며 그餘力을 北中國 經濟開發에 向케할것이라고 主張하고잇서 目下積極派가 相當한 勢力을 占하고잇는바 消極派의 主張에도 首肯할 點이잇서 今後 如何히 展開될지 形勢는 深甚한 興味로써 注視되다한다

外國資本會社 新設擴張不能
自動車工業法으로

【電通東京電話】九日 閣議에서 決定發表한 自動車工業强化의 未綱에 依하면 旣存의 百%外國資本自動車 製造會社 即 日本제네랄모ー타ー日本포ー드와 如한會社는 新設擴張이 絶對로 不可能케되려인데 但 外國資本系會社도 그株式의 過半數 即 旣設機의 過半數가 日本臣民에 依할境遇는 이法案에 基하야 許可事業으로서 新設擴張을 許可될수잇는 資格을 備케될으로 從하야 昨夏 當事者間의 協議가 完全히 되엇다가 政府의 自動車工業法案 要決定과 資本逃避防止法에 抵觸됨을 理由로 結局 中絶되엇던 日本産業의 日本제네랄모ー타株式買取에 依하야 兩者의 資本的提携談은 그實現의 可能性을 再次發見키로되어 鮎川日産社長은 九日 閣議決定의 要綱의 閣議決定을 기다려 直時 午後 商工省으로 關係官을 訪問하고 法案內容에 對하야 說明을 求하고 이에 基하야 近日中 右 日本제네랄모ー타와의 資本的提携交涉을 再開키로 되엿다한다 그리고 포ー드會社도 現在와 如히 百%外國資本인 以上 今後의 新設擴張은 絶對로 不可能함으로 同社도 右 日本제네랄모ー타와 同樣으로 最近 急速히 某造船機械製作會社間에 資本的提携談을 進行할것이라고 傳하는데 이것은 아즉 實現의 可能性이 稀少하다고보이지만 何如間 그 更生策이 注目되다한다

日産、쩨네모타 資本提携
共同經營으로

日産은 日本제네랄모ー타ー스會社와 共同經營下에 自動車製造를 行키로되엇다 그리하야 日産側은 日本제네랄모ー타ー스株十六萬株中 日産이 五十一%、日本제네랄모ー타ー스가 四十九%을 所有키로되엇는데 右는 昨年 日産이 日제會社와의 交涉에 依하야 日제는 大體諒解를 與한것임으로 今日 日産이 正式으로 提示하면 米國의 제네랄모ー타ー스會社는 承諾을 與할것으로 觀測되다한다

米國의自働車 製造高激增
【電通紐育九日發】

米國의 自動車製造工業 聯合會의 九日發表에 依하면 一月以降 七月末까지의 自働車 製造高는 一七、九一九、八一〇臺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七六、三一六臺 二割의 激增이다。그리고 米國

紡績操短再擴張 變更안키로決定

【大阪電話聯合】九月以降의 紡績操短再擴張問題에 關하야 紡績聯合會에서는 九日委員會를 開催하얏는데 當日은 豫想되던바와 가티 劈頭부터 論議가 紛糾되어 前後六時間에 亘하야 協議한 結果 結局 擴張派가 讓步하야 如左히 操短不變更으로 決定하얏다

◇決議＝綿業界의 趨勢에 鑑하야 製産調節의 必要가 잇다고 認하나 十月까지의 操短은 이미 決議濟임으로써 이것을 變更하지말고 委員會는 各自自制하야 需給調節에 努力키로 하며 委員外의 會社에 對하야 서그趣旨에 副토록 勸獎하고 十一月 以降의 操短에 對하야서는 될수잇는대로 急速適切한 方途를 講究할것

各社自制로 生産을制限
庄司東洋紡績社長談

【大阪電話聯合】紡績操短委員會 散會後 委員長인 東洋紡績社長 庄司乙吉氏는 如左히 말하얏다 今日의 委員會에서는 需給調査委員會의 調査報告를 協議한 結果 一旦決議한 九、十月의 操短決議는 變更치안키로 決定하얏스나 綿業界의 大勢는 生産調節의 必要를 認하고잇슴으로 今後 各自自制하야 綿絲의 生産制限을 하기로되엇다。此際自制는 義務的이아니오 各社의 自由이다

流筏被害合同調査

鴨綠江出水에 依한 流筏被害狀況

今年의新租 仁川에初入荷
九日每斤十錢에賣買

【仁川】昨九日 利川으로부터 仁川海岸町三邊商行에 新租二十六石이 入荷하야 即席에서 每斤十錢에 賣買되엇다는대 例年에 比하야 約十日가량 일으다고한다。

正租檢査規則解說(一)
全南道穀物檢査所 尾崎支所長

正租의 國營一般檢査는 總督府令第九十六號로서 現行朝鮮穀物檢査令施行規則의 改正普行되고 八月六日發布 今秋十月一日부터 施行하게되엇다。當所에서는 近日 全管內에 亘하야 本規則의 周知를 圖謀하기爲하야 座談會를 開催할豫定인데 이機會에 參考하기爲하야 本改正規則의 槪要를 個條的으로 說明하면 알에와갓다

(一) 正租 一般檢査는 現行穀物檢査令 第一條에 依하야 正租檢查指定地를 認定하고 其指定地에서 又는 指定地를 經過搬出하는 正租에 對하야 檢査를 行하게되엇것으로 이境遇에는 從前의 檢査除外規定에 左의二項을 追加하얏다。

(1、) 種子의用으로서 製의證明이 有한것。

(2、) 小作料로 納付하는 小作正租。

(二) 檢査를受할時는 檢査請求書에 收入印紙를 貼付하야 所轄穀物檢査所에 此를 納付하게되바 檢査手數料는 叺入一個에 對하야 三錢

(三) 右의 一般檢査指定地以外의地、即 地主의米穀을 貯藏하는 倉庫의所在地、籾외 共同販賣를 行하는場所 其他籾의 集散하는場所의 籾檢査에 對하여서는 出張檢査를 行하게되바 其指定地外 檢査場所의 出張檢査費用은 檢査所長이 此를 免除할수有함。

右의 一般檢査指定地及 指定地外 出張檢査場所는 別途告示하게되엇고 又告示하는 以外의 地에 出張하야 檢査를 行하는 境遇에는 從前과 如히 申請에 依하야 許可를 受하는 一切費用은 檢査請求人의 負擔이다。

(四) 檢査를受할 籾의 重量及包裝은 如左하다。

(1) 重量＝叺入一個에 對하야 九十斤(叺一斤半을 添加할것)

(2) 包裝＝包裝叺은 반드시 叺檢査規則에 依하야 檢査를受한것을 使用치안하도 關係치안코 搬出時에 亂俵가 되지안흘程度이면 古叺이라도 조타。

가、掛繩은 直徑四分乃至四分五厘의 藁繩을 使用할것。

나、縱繩은 二個所에 施하되 各二重으로하고 男結로 結할것。

다、橫繩은 二個所에 施하되 (藁繩을 使用치안는 數에 限하야서는 一個所에 此를 施함수잇슴)各二折繩으로서 中央의縱繩에 巴掛로하고 其繩의 折目에 引掛하여 男結로 結할것。

라、口取繩은 中央의縱繩에 掛하여 其縱繩과 如히 男結로하고 結止의端에 發封을 施한 餘部를 存할것。

漢城銀行員異動

漢城銀行에서는 八月九日付로 如左히 行員移動을 發令하얏다

▲永同支店支配人 林駒吉 檢査役을命함▲釜山支店支配人代理 今澤康三 永同支店支配人을命함▲永原支店支配人 金柄熙 驪州支店支配人兼務를免함▲驪州支店支配人代理 洪哲杓 驪州支店支配人心得을命함▲本町支店支配人代理 高●義廣 釜山支店支配人代理를命함▲小山繁二(營業課) 本町文店支配人代理를命함 千葉泰二郞(釜山) 南大門支店支配人代理를 命함 ▲兪鎭采(營業課) 驪州文店支配人代理를命함 ▲南大門文店支配人代理 德住新一 檢査役勤務를命함

小麥百萬圓 蘇聯이購入
中止前의큰去來

【東京電話聯合】北鐵讓渡金物資支拂로서 大豆의商談이 成立되고 이어서 米、大麥、小麥의 買付가 注目되던바 蘇聯駐日通商部에서는 全前蘇聯이 鮮滿小麥을 國外로 輸送하야 對하야 買倒한빛을 示하야 日米、三井、三菱、淺野、大倉等이 注文을보엇는바 三井物産을 通하야 日淸製粉間에 도三十萬袋이어서 日本製粉과의間에 約二十萬袋 合計四十萬袋 金額約百萬圓의 大量商談이 成立되엇다한다 如斯이 日本製粉界 從前의 大取引으로서 最近의 小麥市場價格昻騰의 有力原因이된것이라한다

上旬對外貿易
出超百十萬五千圓

【電通東京電話】大藏省發表＝八月上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六五、五八八
輸入	六四、四八三
合計	一三〇、〇七一
出超	一、一〇五
一月以降入超累計	一八一、一七一

商況(十日)
株 日産獨高 好勢

前場區區 今朝場은 外電소 出回四十三兆八分一로 昻騰이나 綿絲各限二百圓 關門割의 不勢로되後 東新 百三十八圓五十錢 日産 七十四圓五十錢에 綿騰活氣를 뭇하다가 結局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三十七圓八十錢 日産一圓十錢高인 七十三圓十九錢 大新 八十四圓四十錢 朝新 二十五圓五十錢에 區區大引이고 日魯는 五十三圓五十錢에 買進되엇다가 五十三圓了에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 諸株四、五十錢低의 弱含이엇슴으로 當地氣配도 一齊反落이엇다。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日魯 [illegible]

日産株獨連騰
自動車製造好感

軍需株高를 動機로 東京서부터 硬化한市勢가 東新은 百三十八圓臺에서 踏步하야 伸悩이나 日産은 午前場에 東京七十四圓七十錢、當地七十四圓五十錢의 高價로 獨特高를 演하야 注目되엇다。이는 過去 日産 新株込을 動機로 買叫가 激烈하야 過剩의 賣物이 만혀엇고 會社側等의 機會得의 買物이잇슨데다가 今般 自動車工業의 國策化에 伴하야 日産이 제네랄모ー타ー스會社와 共同經營으로 自動車製造에 着手케된것이 거의 確實視됨에 딸어 一層 買氣에 拍車를 加케되모양이다。이리하야 日産은 가장 앞서서 漸騰好勢를 뭇하는바 騰勢가 얼마나 繼續될지 注目되엇다。

協力豫算의今後
好材取扱尙早?

無市勢로보던 八月市勢가 좀생기가 잇서보이니가 買方으로서는 기운이생기어 秋市勢의 前哨戰이라고 떠들게되엿다。그러나 艮曾人氣는 容易히 업서지지안으니 反撥의큰것은 밋기어려운 노릇이겟지?明年度豫算等 總額은 二十八億圓內外에 達한바 今後 各省과의 協調로 豫算編成이 圓滿히 終了되리라는 期待가잇고 特히 世界的 軍備時代에잇서 軍事費膨脹을 免으로 軍需株가 올느고 日産도 七十圓關門을 恢復하고 騰勢가 그럴듯한바 要求豫算總額이 前年度보다 一億圓減少된데 對하야 大藏省이 어느程度로 削減할것인지 豫算減少의 一面은 增稅不安解消作用이잇스리라하나 果然이 協力豫算이란것을 어느程度로 局部하야할것인지 今後의 形勢를보아야할것갓다。

平行?跛行?
强弱觀測이區區

强氣는 말하되 世界的軍備時代에 直面하야 軍需股膨脹은 避免으로서 軍需關係의 重工業株에 對하야 旅資熱이 出動하고 新環境의 好調이오 軍需景氣出現을 豫想하는터로서 이 軍需株高가 市場의 序幕이 될것이다 가을 市場의 全般은 이미 十二分 底價를 씻내고 모든不安에 免役이잇서 압흐로는 好材만 敏感할것이즉 目前大幅活躍은 難望라 할지라도 모름직히 押目買로 確實히 轉換할것을 알어야겟다 하는 反面 弱氣는 말하되 軍需株의 昻進은 決코 否認하는바 아니나 軍需株高가 即 株界全般의 活躍을 招치는못할것이다。그러나하면 豫算編成이 어떠케될것인지 增稅不安이 完全一掃되기前에는 軍部이 크며 對外的으로 蘇聯의 日本誹謗이라던가 對中問題라던가 決코 疎忽히 생각할수업는것이 잇스며 産業部門에는 憂慮되는 纖維工業株가튼것이 잇스니 今後는 四圍時代에서 容易히 脫出치못할 것으로서 東新가튼것을 軍需業株가 올느다고 이것도 올느리라고 사기는 어려울고 賣方은 나서는 도리어 大下放을 根致케되어 眞正한 大底入에 商하리라고 商談이 區區하다

大阪短期取組

	實方	賣方	取組高
日産	三七	五七	五五〇、八〇
東新	四一	五一	七六六、四〇〇
大新	三四	六〇	七六九、六〇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 二百枚

▲鮮滿開拓 三〇▲朝鮮製鍊 三〇▲滿洲麥酒 三〇▲大同電力 六〇▲

市場六感

株 東新은 百三十八圓臺에서 더올느지못하고 伸悩▲日産은 七十四圓臺로 强好勢▲그동안 日産은 五圓更로 關係도잇고 또이번 自動車工業國策化에 伴하야 日本「쩨네랄모ー타스」擬를 一%買收하야 共同經營으로 自動車製造에 着手케될것이 好感의 主原因인모양 ▲얼마나 이好感買가 繼續되느냐가 問題

▲例의 新聞や字は 超然 東新의 弱氣를 主張해말하되 「昭和四年一月부터 三月까지 週間棒으로 八週間保合하야 그 當時値히 三、四十錢의 市勢이엇다가 그結果는 九十六圓二十錢까지 買叫되더니데 이번도 八週間保合으로 大底가 未入이니 좀反撥되다고 買할것이아니오 行好의 買場이라는고 氣焰이그럴듯한바 果如何?

米 問題의 颱風은 朝鮮海峽을 通하야 그中心勢力을 對馬島方面에 置하고 無事通過하는모양▲그餘波로 全州에 百五十粍、木浦에 四十六粍、釜山에 九十粍、對馬島에 三百四十粍의 降雨가 잇다고 旱地인 全羅方面에는 돌이혀 甘雨▲이번의 颱風이 日本內地로 侵入한다 할지라도 開花期가 아님만큼 何等의 悪影響이업스리라고云云▲참아리 開花前의 颱風은 虫災驅除에 有助하다는 弱氣說도 不無▲그러고 來十六日부터 保證金을 受付하게되는 政府米四十萬石拂下는 弱材化하기는 姑捨하고 돌이혀 强材化 ▲小體에잇서서도 强材化할 價値도업거니와 昭和八年産의 古米이라 渡米에 供할만한 品格도못되나 ▲그럼으로 市勢는 依然在米薄을 唯一한 强材로하야 高價를 維持할뿐▲果然 買方으로서는 正米의 事情이 如是할을 視하고 最後一戰을 決하기까지 態度를 變치안흘모양이니 買方으로서의 應戰이 困難?

今日財界(十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正米(仁川) [illegible]

◆株 (單位錢) 東新 [illegible] 新東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市中金塊價 [illegible]

期米
拂下無響 細刻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內國債는 情況保合으로 伸悩이나 外貨債는 前日보다 五分乃至八十錢高 [illegible]

前場小高

昨後場을 比하야 二十七圓十四錢止와 共히 當市場은 八十九錢에 場을止한 [illegible] 阪地初付三十圓十九錢인 五丁反高를 演하고 二十七圓九十一錢인 二丁高로 場을 始한後 阪地十五錢까지 反落하야 二十錢의 高로 止場하얏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七圓八十九錢에 一丁低로 始場後 八十五錢까지 少押하엿다가 結局九十錢에 場을 止하엿다

拂下와颱風도 市勢엔無影響

政府는 來十六日부터 所有古米四十萬石을 拂下하기로 發表하 [illegible]

當限一高雖免
渡米주혀無望

昨今 當地當限은 三十圓四十錢臺를 中心으로 不伸不押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當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地場、勢側、東京側、中直側、京都側 ▲買方 地場側、田中直、神戶側

京城閑況

休日을압두고 休日이 적어 [illegible] 丸仁三等三十四圓二十錢 四等三十圓 一等白米三十一圓八十錢

仁川不動

期米安인 日本內地古米에 買氣가 보이어 市中取引은 依然시 丸仁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了 一等白米十二圓九十五錢

釜山不味

市場賣物二千叺 內外期米强調로 下落이나 日本內地米拂下 실行等으로 期米에 輸入을 期待하고 買氣가 稀薄하다 角ク三等三十圓二十錢

大邱焦付

期當限은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七十四錢 產地買付가 全혀困難케되고 思惑側의 買積으로 强硬하 角ク三等 [illegible]

群山小堅

廻着一輛拂下發表가잇스나 産地糧米不足이 深刻하야 人氣가 逆으로 極端的 買物薄을 織入하야 市況小强이오 四等二十九圓九十五錢 白米十三圓二十錢 一等 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九圓 十錢 一等白米十二圓十錢

木浦不變

出廻二千五百叺이나 定期의 逆循米로 倉入되어 休日을압두고서 要方에 소리업고 活氣에 乏한 場面이 丸木多摩 三等三十一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雄町三等三十圓二十錢 四等三十圓了 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强含

日本內地米 四十萬石拂下發表가 잇스나 在庫拂底로 人氣는 참아리 强調를示한 丸ナ 船尾三等三十圓了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錢

市況表(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가꼬期麥◆ [illegible]

◆鑛油沖價◆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錦棉花沖價◆ [illegible]

期米(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株式(十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商品(十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334